metro
2014년 2월 5일 수요일 제2807호 www.metroseoul.co.kr

Sports p/22

안현수의 '인형 같은 여친'



속절없는 추락 코스피지수 1900선이 붕괴된 4일 오후 서울 명동 외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한 딜러가 생각에 잠겨있다. 코스피지수는 전날보다 33.11포인트 하락한 1886.85로 마감됐다. /연합뉴스

# 美펀치 '코피' 터진 코스피

## '미국 경기회복 불신감' 확산에 1890 무너져…"1850까지 내려갈 수도"

미국·중국 경기가 '콜록' 하자 전 세계 금융시장이 몸살을 앓고 있다. 신흥국 금융위기에 떨고 있던 세계 증시는 미국과 중국이 경기 둔화 우려까지 겹치면서 일제히 급락세를 연출했다.

4일 코스피지수는 미국발 한파에 맥없이 1890선이 붕괴됐다. 장 초반부터 1900선이 무너지자 시장의 불안감은 증폭됐다. 이후 하락폭이 커지더니 결국 전 거래일보다 1.72% 내린 1886.85로 거래를 마쳤다. 코스피가 종가 기준으로 1890선 밑으로 떨어진 것은 지난해 8월 28일(1884.52) 이후 5개월 만에 처음이다.

특히 외국인이 대규모 물량을 쏟아내면서 지수를 끌어내렸다. 외국인은 6032억원 순매도한 반면 개인과 기관은 각각 3576억원과 2198억원 매수 우위를 기록했다.

춘제 연휴로 휴장한 중국·대만을 제외하고 일본, 홍콩 등 아시아 주요 증시도 약세를 면치 못했다.

일본 증시는 4%대 폭락하며 4거래일째 밀어졌다. 일본 닛케이225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4.18% 하락한 1만4008.47로, 토픽스는 4.77% 떨어진 1139.27로 각각 거래를 마쳤다. 닛케이225지수는 약 3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토픽스는 8개월여 만에 최대 낙폭을 보였다.

이처럼 세계 증시가 하락한 것은 신흥국 금융위기 불안과 중국 경기 둔화에 이어 글로벌 경기 회복세를 이끌어온 미국 경제마저 흔들리면서 투자심리가 급격히 냉각됐기 때문이다.

특히 간밤에 발표한 미국의 제조업지수가 화근이 됐다. 미국 공급관리자협회(ISM)는 지난 1월 제조업지수가 51.3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시장 전망치(56.0)를 크게 밑돈 것이며 지난해 5월 이후 최저치다. 한마디로 미국 경기가 이상보다 좋지 않았다는 얘기다. 발표 이후 시장에선 "미국 경기가 과연 회복세에 들어섰느냐"에 대한 불신감이 확산됐다.

ISM 제조업지수는 미국 400대 제조업체 구매 담당자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를 지수화한 지표다. 50 이상이면 경기 확장을 50 미만이면 경기 수축을 의미한다. 한국 수출에 6개월 정도 선행하기 때문에 국내 경제와 증시에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 증권가 "당분간 반등 어려워"

증시 전문가들은 "제조업지수 악화는 결국 국내 기업 실적에도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면서 "당분간 코스피의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신흥국 금융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한국은 경제 기초체력 자체가 다르다"는 목소리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박성훈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향후 지지선을 1850으로 낮춰 잡아야 한다"며 "외국인의 매도 공세가 진정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지수가 당분간 탄력적으로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경수 신한금융투자 투자전략팀장도 "코스피가 이달 중 추가 조정될 수 있다"며 코스피 하단으로 1850을, 상단으로는 1970을 제시했다.

박소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주까지 하락 분위기는 지속될 전망"이라며 "다음주 재닛 옐런 연준 의장 내정자의 청문회가 열리는데 여기서 양적완화 축소, 금리 인상 등에 관한 온건한 발언이 나오면 분위기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민지기자 minji@metroseoul.co.kr

## 3년도 못 버티는 커피숍…3년은 버티는 편의점

### 서울 자영업지도 한식당 경쟁 가장 치열

2008년 서울에서 문을 연 음식점과 휴대전화 매장, 커피숍 가운데 절반은 3년 이내에 문을 닫았다. 반면 편의점과 카센터, 세탁소는 10곳 가운데 7곳 이상이 생존했다.

4일 서울시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공개한 '2013 서울 자영업자 업종지도'를 보면 외식업(10개), 서비스업(22개), 도소매업(11개) 등 생활밀접형 43개 업종 가운데 자영업자가 가장 많은 업종은 한식음식점으로 나타났다.

한식음식점 1곳당 유동인구는 277명으로 외식업 중 가장 경쟁이 치열했고, 호프-간이주점(677명), 분식집(1350명), 커피음료(1377명), 치킨집(2950명) 등도 유동인구 대비 사업체 수가 많았다.

지역별로 한식음식점 밀집도는 서대문구가 1개 사업체당 유동인구 74명으로 가장 높았고, 동작구가 405명으로 가장 낮았다. 호프·간이주점도 서대문구가 1곳당 132명으로 밀집했고, 중구는 1곳당 1444명으로 업체 수가 가장 적었다.

서비스업의 경우 부동산중개업(572명)의 밀도가 가장 높았다. 그 뒤를 미용실(648명), 입시 보습학원(1602명)이 이었다. 입시보습학원은 양천구가 사업체당 유동인구 187명으로 가장 밀집됐고, 중구는 1만5663명으로 밀도가 낮았다.

보육시설 고밀지역은 도봉구(744명)였으며 저밀지역은 중구(1만6302명)였다.

도소매업 밀도는 의류점(654명)이 가장 높았고, 슈퍼마켓(1103명), 휴대전화 매장(2398명), 약국(2496명), 편의점(2566명) 순으로 나타났다. <2면에 계속>

/채신화기자

# 잇단 구설수 윤진숙 "제가 인기가 많아서…"

## 박 대통령 "대처 미흡해 매우 유감" 책임 물을지 주목

전남 여수 기름 유출 사고 현장에서 손으로 자신의 코를 막는 행동을 보여 질타받은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이 '인기 덕분' 발언으로 또다시 구설에 올랐다.

윤 장관은 3일 JTBC '뉴스 9'에 출연해 피해를 입은 여수 주민들 앞에서 손으로 코를 가리는 행동을 한 것에 대해 "독감 기침으로 옆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였다"고 말했다.

또 "왜 자꾸 구설에 오른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인터넷에 윤진숙이라는 이름이 뜨면 보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 인기 덕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은 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번 기름 유출은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은 데다 부실 신고와 빠른 사후 대처가 미흡했던 점이 매우 유감"이라며 "관련 부처에서는 앞으로 이런 사고에 대해서 안일한 태도로 임하지 말고 신속하게 대처하고 세심하게 처리해주기 바란다"고 윤 장관을 질책했다.

민주당은 이날 "어제 언론 인터뷰에서 한 윤 장관의 답변은 국민의 실소를 자아내게 한 예능 수준에 불과했다"며 "사고 경위를 철저히 파악하고 조사해 책임 있는 사람은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고 비난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박근혜 대통령은 현오석 부총리의 발언 후 공직자가 적절치 못한 발언으로 국민에게 상처를 주는 상황이 재발할 때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며 "박 대통령은 국민 마음에 상처를 준 장관에게 책임을 물어 약속을 지켜라"고 요구했다. /조현정기자

**코 막고 혼자 웃고**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1월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한 여수 신덕동 방제작업 현장에서 코를 막고 있다(위 사진). 이어 항의하는 신덕마을 주민 앞에서 웃는 모습을 보여 구설에 올랐다. /연합뉴스

정부, 마음만 먹으면 털리는 주민등록번호 체계 개편 검토 착수

# 주민증 발행번호로 대체?

중국 포털사이트 바이두 검색창에 '주민등록번호'를 검색하면 한국인 주민등록번호를 팔겠다는 게시글이 끝도 없이 쏟아진다. 세계 최대 검색엔진 구글 사이트에서 KSSN(Korea Social Security Number)을 검색해보면 한국인 주민등록번호로 게임 사이트에 가입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글이 수두룩하다. '나쁜' 마음만 먹으면 13자리로 구성된 주민등록번호를 손쉽게 알아낼 수 있다는 이야기다.

'전 세계인의 공유재'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 주민등록번호 체계에 드디어 메스가 가해질 전망이다.

안전행정부는 카드사와 시중은행에서 줄줄이 유출된 주민등록번호의 제도 개편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고 4일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달 27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주민등록번호가 대다수 거래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어 한 번 유출되면 그 피해가 2차, 3차 피해로 확산될 위험성이 있다"며 "외국의 사례를 참고해 주민등록번호와 함께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없는지 검토해 주기를 바란다"고 지시하기도 했다.

**6·4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 시작** 6·4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 첫날인 4일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 접수대가 설치돼 있다. 시·도지사 선거 및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은 5월 14일까지다. /연합뉴스

이는 최근 5년간 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건만 8차례 이상 발생해 우리나라 인구 수의 두 배가 훌쩍 넘는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됐기 때문이다. 사실상 전 국민의 주민등록번호가 인터넷에 떠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 주민등록번호 체계를 근본적으로 들여다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가장 먼저 거론되는 것은 주민등록번호를 주민등록증 발행번호로 대체하는 방안이다. 발행번호는 개인의 특성을 유추할 수 없는 무작위 번호로 생성되며 필요 시 변경할 수 있다. 하지만 발행번호도 유출될 수 있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대체 수단으로는 아이핀, 운전면허 면허번호 등도 거론되고 있다. 이들도 결국 주민등록번호와 연계돼 있다는 점이 한계로 지목된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어떠한 종류의 만능 식별번호도 더 이상 도입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는 "다른 개인정보는 유출 시 변경이 가능하지만 주민등록번호는 변경이 불가능해 한 번 유출될 경우 평생 피해가 야기될 우려가 있다"며 "미국의 사회보장번호처럼 특정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목적별 번호로 대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희철기자 kailos@metroseoul.co.kr



# '개미' 발길 막는 뒷북 보고서

기자 수첩
김현정
<경제산업부 기자>

증권가의 뒷북 보고서가 여전하다. 기업들 실적이 안 좋다는 결과가 나오거나 외국인이 물고 나간 뒤에야 장밋빛 전망을 거두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는 한 발짝 늦은 행보를 보인다.

올 들어 국내 주식시장이 외국인에 좌우되는 정도는 더 높아졌다. 증권업계에서는 외국인으로 증시 쏠림이 불충분하며 개인투자자가 돌아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증권가의 리듬감 정상화가 먼저 필요하다.

외국계 증권사들은 삼성전자 등 국내 기업의 실적 둔화를 싱커페이션 리듬으로 다루며 국내 투자자에게 놀라움을 안긴다. 당김음으로 예상치 않았던 전개를 선보이면서 음악에 리듬감을 부여하는 싱커페이션처럼 국내 증시의 부정적 소식을 먼저 제시하고 수급을 이끌어나간다.

반면 국내 증권가는 늘상 한 박자 밀리며 투자자를 지루하게 만든다. 수년째 수익성 악화로 고전하는 증권사들은 '매도' 보고서를 내거나 기업 실적 전망치를 부정적으로 제시했다가 기업과의 관계가 악화될까 봐 우려한다. 그러나 국내 기업 사정을 외국계 금융기관이 더 상세하게 안다면 개인투자자는 더 움츠러들 수밖에 없다.

증권사들은 지난해 4분기 실적 공시에서 영업이익 부진 사유로 일제히 "시장 위축으로 인한 수수료 수익 감소"를 주원인으로 꼽았다.

국내 증권가가 리듬감 회복으로 장세를 이끌며 개인의 투자심리를 끌어당길 역할이 강조되는 시점이다.

## 중구 자영업체 가장 많아 생활밀접형은 강남구

<1면에서 계속>

전체 자영업체 수는 중구가 5만9600개, 강남구가 5만8000개, 송파구가 4만2800개로 상위권을 기록했다. 하지만 분석 대상이 된 43개 생활밀접형 최다 보유 자치구는 강남구로 한식·양식 일반의원·부동산중개업 등 24개 업종이 밀집돼 있었다.

2011년 기준으로 창업 후 생존해 있는 사업체의 생존율은 1년 81%, 2년 67%, 3년 54%로 나타났다.

3년간 생존율이 가장 높은 업종은 보육시설(90%), 치과·일반의원(78%), 약국(76%), 자동차 수리(75%) 순으로 주로 전문 업종이었다. 생존율이 낮은 업종은 PC방(32%), 의류점(43%), 휴대전화 매장(44%), 당구장(44%), 부동산중개업(46%) 순으로 두 곳 중 한 곳 꼴로 3년 내에 폐업했다.

생존율 상위 10개 업종

생존율 하위 10개 업종

자료/서울시 · 연합뉴스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은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seoulshinbo.co.kr)에서 자영업자 업종지도를 자세히 살펴보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신연기자

## 숭례문 복원 단청장이 '자격증 대여 장사'

자격증을 빌려준 뒤 실제 공사에 참여하지 않고 돈만 받아 챙긴 문화재 수리기술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4일 돈을 받고 문화재 기술자 자격증을 대여한 혐의로 홍모(58) 숭례문 복원공사 단청장 등 문화재 수리기술자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문화재 수리업 등록을 위해 이들에게서 자격증을 대여받은 보수건설업체 19개 법인과 대표자 19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홍씨 등 문화재 수리기술자들은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문화재 보수건설업체에 자격증을 빌려주고 그 대가로 각각 1100만~3500만원씩 총 4억6300만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전국의 국보·보물·중요민속문화재 155건을 대상으로 보수건설업체들이 실제 무자격 상태에서 보수공사를 진행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김다히기자 yeh@

**국내 1호 아현고가 철거** 서울시가 아현고가도로를 오는 6일부터 통행을 전면 통제하고 철거작업을 시작한다고 밝힌 가운데 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아현고가도로에서 차량들이 통행하고 있다. /뉴시스



# 아빠 육아휴직에 '보너스'

### 두번째 쓰면 첫달 임금 100% 지급 ··단축근무 땐 통상임금 60% 지원

정부가 여성 고용률을 70%로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섰다. 여기에는 육아를 위한 단축근무 시 통상임금의 60% 지원,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율 제고를 위한 육아휴직 급여 지원 확대 등 '일하는 여성의 생애주기별 토 경력 유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

그러나 이번 제도 도입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재계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아 실효성 면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일하는 여성의 생애주기별 경력 유지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우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성화해 경력 단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육아휴직 대신 주 15~30시간 근무를 선택하는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시간만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기존에는 12개월의 육아휴직 대신 12개월의 단축 근무를 선택할 수 있었지만 향후 단축 근무를 12개월 더 연장할 수 있다. 단축 근무 시간에 비례해 지급하는 단축 급여액은 통상임금의 40%에서 60%로 상향 조정된다.

임신·출산 단계에서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해 육아휴직 제도를 개선한다. 현재 3.3%에 불과한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육아휴직 급여 지원을 확대한다. 부부 중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람의 첫 1개월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40%에서 100%로 상향 조정되고, 통상임금 상한선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늘어난다.

재계는 공감 의사를 나타내면서도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모성보호 제도 확대가 당초 취지와 달리 노동시장 내 여성 인력에 대한 기업 부담을 가중, 여성 고용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재계 "여성고용 되레 위축" 반대**

재계 관계자는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확대 등의 사안은 기업 인력 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현실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했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며 "또 정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이 고용보험 기금에서 소요된다는 점에서 기금의 본래 목적과 무관한 막대한 지출을 야기해 적자에 시달리는 고용보험 재정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태균기자 ksub@metroseoul.co.kr

**쇼윈도의 봄' 마네킹이 부러워** 봄의 시작을 알린다는 입춘인 4일 기온이 영하 11도 하지 떨어진 가운데 한 시민이 두터운 외투로 중무장을 한 채 봄옷이 전시된 서울 명동 롯데백화점의 한 매장 앞을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 "AI 인체감염자 국내에도 있었다"

### "10명 바이러스 항체 형성" 정부는 '무증상 감염' 일축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AI 인체 감염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일부 언론에서는 질병관리본부가 지난 2003~2004년, 2006~2007년 AI가 발생했을 당시 가금류 살처분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혈청 검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10명에게서 AI 바이러스의 항체인 H5N1형이 생성됐음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본부는 "지난 2003년 AI 바이러스의 H5N1 항체 양성 사례는 세계보건기구(WHO) AI 인체 감염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WHO가 정의한 AI 인체 감염은 바이러스가 인체에 침투하고 증식해 증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질병관리본부의 입장은 국내에서 발생한 사례가 무증상 감염'이라 인체 감염이 아니라는 것이다.

AI 발생으로 가금류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4일 김문수 경기지사와 직원들이 도청 구내식당에서 삼계탕을 먹고 있다. /연합뉴스

즉 바이러스에는 노출됐지만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고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위험도 없었다는 설명이다.

또 본부는 "올해 발생한 AI는 H5N8 유전형으로 지난 2003년 이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H5N1형과는 전혀 다른 유전형"이라고 강조하며 일부 언론의 보도를 일축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아직도 바이러스 항체의 존재 자체가 인체 감염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송채용기자

# 동해남부선 폐선 '그린 레일웨이'로

**시, 해운대구 올림픽교차로~동부산관광단지 9.8㎞ 조성**
**2017년까지 316억 투입 자연경관 살려 자전거길 등 설치**

부산시가 해운대구 올림픽교차로에서 기장군 동부산관광단지에 이르는 9.8㎞ 구간 26만8000㎡의 동해남부선 폐선 부지에 대한 '부산 그린 레일웨이'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부산시는 2017년까지 316억원을 투입해 우동에서 동부산관광단지까지 자연경관을 살려 자전거길 및 산책로, 전망대, 녹지 등을 설치하는 부산 그린 레일웨이 조성사업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올해 예산 10억원을 확보해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 중이다. 용역은 자문위원회 구성 및 주민설명회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용역이 끝나는 9월경에는 잔여 예산으로 일부 구간 공사를 착수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해운대구 관광특구와 수려한 해안 절경이 연계되는 관광벨트 조성으로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해안권 발전의 파급효과 등이 따를 것으로 시 측은 내다봤다.

한편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는 부산 그린 레일웨이 조성사업 구간 내 미포~구 송정역 간 4.8㎞ 구간과 구 해운대역사 주변에 대한 개발사업 추진방침에 따라 모든 사항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백지 상태에서 다양한 아이디어와 방안을 수렴하고자 오는 3월 말까지 '동해남부선철도시설 개발사업 민간 제안 공모'를 실시 중이다.

접수된 민간 제안 사업에 대해서는 부산시, 해운대구, 철도공단이 함께 참여해 전문가 자문,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제안서를 평가한 후 개발사업을 확정한다. 이후 확정된 사업계획 내용으로 사업 주관자 모집 공고를 거쳐 7~8월 중으로 사업 주관자를 선정해 개발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주민 및 시민 단계에서 우려하는 일방적인 개발이 아닌 시민들이 원하고 공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동해남부선 폐선 부지가 개발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 협의 및 주민 설명회 등을 거쳐 최종 민자사업을 확정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익근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마산수협 갈오년 첫 경매** 4일 새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동서동 마산수협 위판장에서 갑오년 초매식이 열리고 있다. 경매사들이 손짓을 해가며 경매에 열중하고 있다. /연합뉴스

# 아파트 전셋값 역전…대구>부산

**매매값은 6대 광역시 중 부산 1위 지켜**

최근 대구 부동산 시장의 약진이 두드러지며 1년 새 6대 광역시의 부동산 시장이 크게 요동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의 아파트 전셋값은 사상 처음으로 부산의 아파트 전세금을 뛰어넘었고, 정부 청사가 들어선 세종시의 아파트 전셋값은 인천을 능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4일 KB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으로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6대 광역시의 평균 아파트 전셋값을 비교한 결과 대구의 아파트 평균전셋값이 1억4792만원으로 최고를 기록했다.

이어 부산(1억4512만원), 울산(1억4359만원), 대전(1억4144만원), 인천(1억2125만원), 광주(1억1456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작년 1월 하순에는 부산이 1억3865만원으로 광역시 가운데 전셋값이 가장 높았고, 울산(1억3388만원), 대전(1억2905만원), 대구(1억2868만원), 인천(1억744만원), 광주(1억347만원)가 뒤를 이었다.

불과 1년 새 할아난 급격한 순위 바뀜의 중심에는 대구가 자리한다. 대구 아파트의 평균전셋값은 작년 11월 하순에 1억4498만원을 찍어 부산(1억4418만원)을 처음으로 추월한 뒤 격차를 점점 벌리고 있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대구의 아파트 전세금이 부산을 넘어선 것은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래 처음"이라며 "매매가가 상승하면 전세가도 동반 상승하는 경향이 있는 데다 전세 물량 수급이 충분치 않은 것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대구의 전셋값을 끌어올렸다"고 분석했다.

실제 대구는 작년에 집값이 8.96% 올라 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바 있다. 반면 부산의 부동산 매매가는 0.07% 떨어졌다.

대구와 부산의 전셋값 역전 현상과 함께 세종시 아파트 평균전셋값(1억2597만원)이 수도권인 인천(1억2125만원)을 넘어선 것도 눈에 띈다.

한편 6대 광역시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 역시 1년 사이에 큰 폭의 지각 변동을 보였다. 부산(2억1067만원)이 여전히 선두를 지키고 있는 가운데 대전(1억9801만원), 대구(1억9766만원), 인천(1억9743만원), 울산(1억9722만원), 광주(1억4719만원)가 뒤따랐다. /연합뉴스

## 오늘부터 통상임금 설명회

부산고용노동청은 이날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연제구 소재 5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통상임금관련 설명회'를 실시한다.

전국 최초로 진행되는 이번 설명회는 통상임금을 둘러싼 노사 갈등을 최소화하고, 임금 체계를 미래지향적으로 신속히 개편하도록 노사 간 협의를 적극 지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산고용노동청은 통상임금 이행 기준의 조기 정착을 위해 2월 중순 이후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 밖에 임금체계 근로시간 개편 지원단을 구성해 노무관리 취약 사업장 등에 대한 컨설팅, 임금체계 개편 관련 분쟁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1과(051-850-6381, 6373)로 문의하면 된다.

## 취업레크리에이션 12일 개최

동래여성인력개발센터는 오는 12일 오전 10시 센터 5층 대강당에서 '취업레크리에이션-잇츠 플레이 취업'을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올해 여성 유망 직종 안내, 취업의 '끼' 발견 레크리에이션 및 내 일자리 찾기 등 다양한 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신청은 선착순 사전 접수이며 방문 및 전화 접수 가능하다.

문의 051)501-8945

## 지역 야생조류 폐사체 모두 AI '음성'

지난달 부산에서 발견된 야생조류 폐사체는 모두 조류인플루엔자(AI) 음성 반응이 나왔다.

부산시는 지난달 28일 부산 강서구 명지동 인근 논에서 수거된 청둥오리 폐사체 6마리의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검사 결과 AI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

이로써 지난달 23일 발견된 물닭, 붉은부리갈매기 2마리를 비롯해 부산지역에서 수거된 총 19마리의 야생조류 폐사체 모두가 AI와 관련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역 당국은 1일 부산의 한 닭 사육 농가에서 집단 폐사한 닭도 임상증상이나 부검 소견 결과 고병원성 AI의 전형적인 특징과는 차이가 있어 AI 오염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폐사한 닭의 분변과 혈액을 부여란과 접종해 AI를 판별하는 주기 검사를 시행해 6일 최종 결과를 내놓을 계획이다.

부산시는 조류 폐사체 AI 검사에서 줄줄이 음성이 나왔지만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 웃음 치료사 자격연수 실시

(사)한국놀이문화협회는 오는 13일부터 제1기 웃음 레크리에이션 치료사 자격 연수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공인 2급 웃음 레크리에이션 치료사 자격증을 주는 자격증 연수로 매주 목요일 오후 7시에서 9시까지 3개월에 걸쳐 진행된다.

협회는 기존에 별개로 나뉘어져 있던 레크리에이션 지도자와 웃음치료사 연수를 하나로 묶어 웃음 건강박수와 마술 등 다채로운 교육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자격증 취득 시 복지관, 병원, 노인대학, 각종 기업체 등에서 강사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증이 주어지며 자기 발전 및 취미 활동을 위해 주부, 회사원, 교사, 최고경영자(CEO) 등 많은 분야의 사람들이 수강을 신청하고 있다.

수업은 협회의 회장이자 웃음건강박수 창시자인 조영훈 박사와 차미곤 교수 등이 지도한다.

문의 051)441-5511

# "동부산 테마파크에 아웃렛 안돼"

## 부산경실련 "사업목적 망각… 눈앞 이익만 좇아"

지난 3일 CJ그룹과 부산도시공사가 동부산관광단지 테마파크 부지 50만㎡ 가운데 8만2000여㎡ 규모의 아웃렛 형태의 초대형 상업시설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3일 부산경실련에 따르면 CJ그룹은 별도의 초대형 상업시설 개발을 공식화한 테마파크 세부 개발계획을 확정해 최근 부산도시공사에 전달했다.

CJ그룹은 관광단지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50만㎡의 부지를 부산도시공사로부터 50년간 무상 임대를 받아 330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동부산관광단지의 핵심 시설인 한국형 영화 영상 테마파크 건설을 주도하고 있다.

CJ와 부산도시공사가 설립한 동부산테마파크(주)는 지난해 시설 착공에 들어가 2015년에 테마파크를 개장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현재까지 투자자 모집 결과에 대해선 전혀 알려져 있지 않고, 2010년 12월 마스터플랜을 수립한 이후 현재까지 세부계획 수립과 타당성 및 사업성 분석만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부산도시공사와 CJ가 지난 2012년 2월 변경주주협약을 통해 동부산테마파크 자본금을 750억원으로 증자하기로 합의한 사항도 아직 지켜지지 않고 있어, 지난해 시설 착공에 들어가기로 한 계획도 언제 이루어질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최근 CJ그룹은 테마파크 조성자금 중 일부인 1000억여 원을 조달하기 위해 상업시설을 유치하는 세부 개발계획을 마련했다.

이에 부산경실련 관계자는 "이는 테마파크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는 없이 또 다른 특혜만을 바라는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당초 사업 목적을 망각하고 테마파크 착공을 미룬 채 눈앞의 이익만을 좇아 동부산관광단지의 조성 목적 자체를 뒤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동부산관광단지의 핵심인 테마파크의 조성과 성공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쇼핑센터와 호텔, 골프장과 분양이 가능한 한옥마을까지 건설된다면 동부산관광단지가 관광이라는 제 목적을 제대로 수행할지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특히 "CJ그룹은 더 이상의 특혜를 바라지 말고 부산도시공사와 자본금을 증자하기로 한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며 "부산도시공사는 당초 계획과 무관한 사업계획을 허용하거나 무리한 기업의 요구에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일축했다.

/정하균기자 jnk@metroseoul.co.kr

# 인터넷 방송 UCC 콘테스트 열린다

## 부산 배경 주제·형식 자유 바다TV 연중 접수

부산광역시 인터넷 방송 바다TV가 부산을 널리 알리고, 시민과 함께 즐기는 영상 중심 포털사이트로 거듭나고자 'UCC 콘테스트'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UCC 콘테스트는 시민이 직접 제작한 동영상 콘텐츠 경연대회다. 올해는 시민들이 좀 더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기존의 'UCC 다모여라' 타이틀을 'I♥부산, UCC콘테스트'로 변경한다.

부산을 배경으로 한 축제와 문화, 명소 등 주제와 형식은 자유로우며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참여 방법은 본인이 직접 촬영·편집한 avi, wmv, asf, mpg 등 동영상 파일을 바다TV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연중 접수)하면 된다.

심사기준은 참의성, 작품성, 주제 적합성 등 영상 전문가들의 심사를 거쳐 2월부터 격월 단위로 9편을 선정해 시상한다. 특히 올해는 참가자들의 도전의식을 북돋우기 위해 최우수상을 마련하고, 시상금도 상향 조정한다.

시는 이들 작품 중 최우수작을 모아 연말에 가장 인기 있는 영상 3편을 선정해 '최고의 클릭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1위 30만 원, 2위 20만원, 3위 10만원)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 인터넷 방송 바다TV(www.badatv.com, 051-888-1177), 공식 트위터(@BusanCityGovt), 페이스북(BusanCity), 미투데이(me2day.net/toktokbusan)로 문의하면 된다. /정하균기자

봄의 전령 홍매화 활짝 일 년 중 봄이 시작한다는 입춘(立春)절기인 4일 오전 경남 하동군 하동읍 하동공원 사회의 거리에서 꿀벌주위 속에 홍매화(紅梅花)가 꽃망울을 터트려 눈길을 끌고 있다. /하동군 제공

## 유엔평화기념관 전시 유물기증 운동 전개

부산시는 12월 문을 열 예정인 유엔(UN)평화기념관 전시에 필요한 유물을 확보하고자 '유물기증(수집) 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한다고 4일 밝혔다.

기증(수집) 대상은 한국전쟁 당시 유엔군 관련 유물로 사진, 영상, 군복, 서적, 음원, 참전용사 소지품, 훈장과 표창장, 사용 장비, 무기류, 휘장, 기타 역사적으로 기념될 만한 가치 있는 자료다.

조건 없는 무상 기증을 원칙으로 하며 기증을 희망하는 유물 소장자는 부산시청 문화예술과(051-888-4211~4)로 문의하면 된다.

기증된 자료는 기증자의 뜻을 기려 기증자의 이름을 새겨 전시할 예정이다.

유엔평화기념관은 세계 유일의 성소인 유엔기념공원과 연계해 부산 남구 대연동 당곡공원 내 건립되고 있다.

## 물가 상승률 1년간 1%대

부산지역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년간 1%대를 기록하며 안정세를 보였다.

4일 동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1월 동남권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부산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09.53(2010년=100)으로 전월 대비 0.6%, 전년동월대비 1.1% 각각 상승했다.

특히 전년 동월 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2월 1.9%를 기록한 이후 1년 간 1%대를 기록하며 안정세를 보였다.

일반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생활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9%, 전년동월 대비 0.8% 각각 상승했다.

생선·조개류, 과실류, 채소류 등으로 구성된 신선식품지수는 전월대비 6.3% 상승했지만 전년 동월 대비 12.4% 하락했다. /뉴시스

# 어린이대공원 동물원 4월 25일 개장

부산 시민의 숙원이자 부산시 현안사업의 하나인 어린이대공원 동물원(더 파크)이 시업 추진 10년 만인 오는 4월 25일 드디어 문을 연다.

부산시는 부산진구 초읍 어린이대공원 동물원(8만4000㎡) 개장일을 4월 25일로 잠정적으로 설정하고 본격적인 개장 준비에 착수한다고 4일 밝혔다.

부산시와 동물원 측은 당초 어린이날인 5월 5일 개장 계획을 세웠다가 만일에 대비한 시설 점검 등 시험운전을 위해 조기 개장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동물사 15동, 공연장, 동물병원, 편의시설 5동 등 건축공사를 이달 중 완료하고 123종의 동물 수급과 적응훈련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시는 특히 동물원 개장 시 우려되는 주차난과 주변 교통체증을 해소하고자 주차장 확충공사(600→1400면)를 3월까지 완료하고 초읍고개 시민도서관과 노상주차장 270면을 추가로 확보하기로 했다.

또 교통안내전광판, 폐쇄회로(CCTV), 신호등, 버스정보 안내시스템을 설치하고 차량 진입로 확충을 통한 신속한 주차 가능 시스템을 마련할 방침이다.

시는 또 개장 초기 대공원 주변의 교통 혼잡이 예상됨에 따라 지역 홍보매체를 이용해 사전에 대중교통 수단 이용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셔틀버스(3대) 운행 계획도 수립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 "난징대학살은 없었다"는 일본 가미카제 유서 세계유산 추진

"세계 각국은 난징대학살을 무시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은 없었기 때문이다."

'위안부 망언'으로 논란을 빚은 일본 공영방송 NHK의 회장에 이어 회장을 뽑는 경영위원회 위원이 과거사를 부정하는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켰다.

4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NHK 경영위원인 작가 햐쿠타 나오키는 전날 도쿄 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타모가미 토시오 전 항공막료장의 지원연설 도중 "난징대학살은 없었던 일"이라고 말했다.

햐쿠타는 일본 문화계의 대표적 우익 인사로 아베 신조 총리와 친분이 두텁다.

한편 가고시마현 지란특공평화회관이 태평양전쟁 말기 가미카제 자살특공대로 동원됐던 대원들의 유서를 2015년 세계기록유산으로 유네스코에 등재 신청할 계획이라고 현지 언론들이 전했다. 현재 지란평화회관에는 자살특공대원의 유서와 사진 등 1만4000여 점이 소장돼 있다. /조선미기자

### 아베 "도덕 교과목 지정"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도덕을 초·중학교 교과목으로 지정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4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전날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도덕을 '특별 교과'로 지정, 일본인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일본의 초·중학교에서 도덕은 정식 교과목이 아니다. 연간 35시간이 할당돼 있지만 다른 과목의 보충수업 형태로 활용된다.

앞서 아베 총리는 첫 총리 임기(2006~2007년) 때 도덕의 교과목화를 추진한 바 있다.

일본에서 도덕을 교과목으로 지정하는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조선미기자

# 中 해군 새해 '종횡사해'

## 남중국해 이어 인도양서 실전훈련… 상륙·나포 등 '무력시위'

중국 해군이 새해부터 상륙훈련에 이어 선박나포훈련까지 벌였다. 강도 높은 해상훈련을 통해 주변국을 잠식, 해양패권을 움켜쥐려는 의도로 보인다.

중국신문망에 따르면 중국의 미사일 구축함 우한함, 하이커우함, 수륙양용선인 창바이산함 등 3척으로 구성된 중국 남해함대 원양훈련편대가 3일 인도양에서의 실전훈련을 마쳤다.

남해함대 원양훈련 편대는 지난달 29일 인도양에 진입한 뒤 해적소탕 등 10여 종의 훈련을 통해 방어력과 특수 상황 대처 능력 등을 높였다. 합동수색훈련에서는 구축함 두 척이 국적 불명 수송선박으로 모의 지정된 다른 구축함에 접근, 선박을 나포하는 실전 훈련을 진행했다.

이와 관련, 훈련 편대의 장원단 참모장은 "편대는 반테러·해적 훈련과 검문 나포훈련을 벌이는 등 해군이 통상적으로 익히는 훈련을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중국 남해함대의 이번 해상훈련은 이웃 국가들을 향한 군사적 무력시위 효과를 노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중국이 동중국해에 이어 남중국해에도 방공식별구역 설정을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까지 나오고 있어 한국 등 인근 국가들은 중국 해군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남해함대는 인도양 훈련에 앞서 지난달 20일부터 분쟁 해역이 포함된 남중국해에서 헬기와 공기부양선을 동원하고 고강도 상륙훈련을 비롯한 전투순찰훈련도 벌인 바 있다.

한편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해 8월 중국의 첫 항공모함 랴오닝호를 시찰하면서 함장에게 "즉각적인 전력화"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정 랴오닝호 함장은 4일 공산당 중앙선전부가 발간하는 잡지와의 인터뷰에서 "시 주석이 항모의 전투력에 큰 기대감을 표했다"면서 "최대한 빨리 전투력을 갖추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중국 최초의 항모인 랴오닝호는 함재기인 젠-15를 싣고 훈련하는 모습이 중국 언론에 공개되는 등 이미 실전 배치돼 작전을 수행 중이다.

/조선미기자 seonmi@metroseoul.co.kr

**대담한 여대생들 '진압경찰 앞에서 졸업사진 찰칵'** 3일(현지시간) 태국 방콕에서 반정부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날 졸업식을 치른 여대생들이 진압 경찰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태국에서는 2일 조기 총선이 실시됐지만 정정 불안은 여전하다. 시위대가 선거를 보이콧하면서 총선 투표율은 50%를 넘지 못했다. 태국 정부는 총선 승리를 주장하고 있지만 반정부 세력은 선거 무효화를 주장하며 시위 강도를 높이고 있다. /AP 연합뉴스

### 만델라 유산 총 45억원

지난해 12월 세상을 떠난 넬슨 만델라(사진) 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의 유산이 4600만 랜드(약 4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3일(현지시간) AFP 등 외신에 따르면 유언 집행자이자 남아공 헌법재판소 부소장인 디캉 모세네케는 이날 요하네스버그에서 만델라 유언장 요약본을 언론에 공개했다.

만델라 유산은 그의 셋째(미지막) 부인인 그라사 마셀 여사와 다른 가족들, 학교와 여당 아프리카민족회의(ANC) 등에 배분된다. 마셀 여사는 현행법상 만델라 유산의 절반가량의 소유권 권리가 있으며 90일 이내 유언에 이의 제기할 수 있다.

만델라 자서전 발행에 따른 인세와 요하네스버그, 케이프타운, 쿠누, 음타타 자택은 가족신탁으로 넘어간다. 만델라의 유산은 그의 타계 이후 가족들의 상속 다툼으로 세간의 관심을 모았다. /조선미기자

### 가방에 새 390마리 넣어 밀반입

metro Brazil

공항에서 새를 밀반입하려던 남성이 경찰에 적발됐다.

50세의 브라질리아 출신으로 밝혀진 이 남성은 브라질리아에서 브라질 북부의 주앙페소아로 자신의 수하물(사진)을 옮기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가방의 무게를 재던 항공사 직원이 가방 속에서 울음소리를 듣고 남성에게 가방을 열어볼 것을 요구함으로써 드러났다.

그러나 남성은 이를 거절했고 결국 연방경찰에 신고해 가방을 열어본 결과, 가방 속에는 물이나 먹이, 환기구도 없이 390마리의 샤프론 핀치(무당새의 일종)가 들어있었다. 그러나 다행히도 죽은 새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브라질에서는 주 간 동식물 매매 시 환경보호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경찰에 가방을 여는 순간 이 남성은 동물학대 및 밀매 혐의로 체포됐으며 압수된 새들은 환경보호위원회로 이동됐다. 새들은 자연으로 돌려보내질 예정이다. /정리=손동완 인턴기자

## market index <4일>

| 코스피 | 코스닥 |
|---|---|
| 1886.85 | 507.56 |
| (-33.11) | (-6.03) |

| 금리 | 환율 |
|---|---|
| 2.85 | 1081.50 |
| (-0.03) | (-4.50) |

### 한국 부도위험 4개월래 최고

한국의 국가부도 위험지표가 4개월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한국의 국채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은 전날 기준 75.77bp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9월 30일(78.56bp)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상재 현대증권 투자전략부장은 "미국 경기 회복 불안감보다 중국 경기 둔화의 영향이 더 크다"며 "중국 경기가 경착륙 조짐을 보이면 국내 경기 한계, 가계부채 문제, 금융시장 불안으로 연결되면서 한국 CDS 프리미엄이 급등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선심성 보험' 그 끝은 어딘가요

## 정부 닦달에 만든 단독형 실손보험 판매 저조
## 업계, 노후실손·4대악 보험도 출시 앞둬 '답답'

정부와 금융 당국이 지나치게 대국민 홍보를 염두에 둔 선심성 보험을 만들어낼 것을 주문하고 있어 이 상품들이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받는 것은 물론 보험사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그동안 금융 당국이 보험사로 하여금 만들도록 유도했던 상품들의 실적이 기대치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출시한 단독형 실손보험의 경우 저렴한 가격에 소비자가 원하는 보장을 선택할 수 있어 판매가 늘 것이라는 금감원의 예상과는 달리 1년 동안 21만 건으로 한 달 평균 1000건이 채 안 되는 판매 실적을 올렸다.

보험업계는 금융 감독 당국이 면밀한 시장 분석 없이 무리하게 상품 판매를 추진한 결과라고 지적하며 올해도 실적이 크게 늘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오는 4월 노후실손 의료보험이 출시를 기다리고 있다. 지난달 24일 법 시행령이 입법예고되고 상품을 만들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금융 당국이 제시하는 가격을 맞출 수 있는지와 과연 이 상품이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더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한술 더 떠 금융 당국은 최근 학교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 등 4대악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 상품을 세계 최초로 출시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4대 악 척결 의지에 따른 것으로 최수현 금감원장도 최근 임원회의에서 4대악 보상 보험을 지체 없이 출시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대통령의 언급이 없었다면 전혀 나올 이유가 없는 상품인 셈이다.

문제는 4대악이라는 개념이 과연 보험으로 보장할 만한 위험인가에 대한 의구심은 물론, 그러면 이 위험 요소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보험은 과거 일어났던 사고의 사례를 분석해 앞으로 일어날 확률에 따라 요율이 정해지고 그에 따라 보험료와 보험금이 만들어지는데 이 경우는 축적된 통계에 따른 요율을 뽑아낼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너무 보여주기식 상품이 많다 보니 보험 본연의 기능과 현실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상품들이 너무 많다"며 "이런 상품들은 대부분 소비자는 물론 설계사들에게도 외면받기 때문에 시장에서 곧 사장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일하는 즐거움 신청하는 실버세대** 4일 서울 마포구청에서 열린 4곤 어르신 일자리사업 통합설명회에서 어르신들이 게쉬 부스 앞에 줄을 선 채로 구직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이번 일자리 사업은 3월부터 11월까지로 올해는 가사 돌봄 파견, 아동 생활 안전, 교통안전 지도, 급식 보조, 거리 환경 정비 같은 새로운 일자리도 마련된다. /연합뉴스

## "주가 방어 하자" 기업들 자사주 매입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으로 주가 방어에 나섰다. 4일 코라오홀딩스는 1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시가총액 1.1%)에 나선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최근 미 양적완화 축소와 동남아 정치 불안 등에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으나 주가 수준이 기업 가치 대비 과도하게 낮으며 기업의 펀더멘털에는 변화가 없다"며 "이번 결정이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외국인 매도세가 몰리면서 주가는 약세를 벗어나지 못했다. 이날 4% 넘게 하락하며 2거래일째 내림세를 보였다.

최근 삼성그룹 계열사들도 자사주 매입 여부에 따라 주가 희비가 갈렸다. 삼성생명과 제일기획은 지난달 28일 자사주 매입을 결정하면서 4년 연속 자사주 매입을 결정하면서 다음날 각각 4% 넘게 상승했다.

같은 날 자사주 매입을 시행하지 않은 삼성카드가 0.43% 오르는 데 그치고 삼성전자는 하락세로 지속한 것과 대조적이다.

코스닥 상장사들도 을 들어 주가 저평가를 이유로 잇따라 자사주를 사들였다.

전자부품 제조업체 유원컴텍은 지난달 14일 회사 대표가 5만6400주의 자사주를 취득했고 정보기술(IT)와 패션 유통업체인 리노스는 같은 달 23일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15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했다.

조성준 NH농협증권 연구원은 "자사주 매입은 시장 유통 물량을 줄여 주가 하락을 방어하면서 부양을 하는 효과가 있다"며 "자사주를 사들인 만큼 기업의 수익성이 담보됐다는 걸 의미하므로 주주 가치 제고 차원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141 142
TEL. 02)721-9800 FAX 02)730-1561

| | |
|---|---|
| 발행인 편집인 | 남궁호 |
| 사장 편집인 | 김 중 학 |
| 편 집 국 장 | 조 인 호 |
| 부산지사장 직대 | 김 덕 준 |
| 서울광고문의 | 02)721-9811.3 |
| 부산광고문의 | 051)959-2100 |
| 독 자 센 터 | 02)721-9881 |

# 분양시장 '최초 마케팅' 붐

## 고객에 '선도 기업' 각인… 경쟁 브랜드 '후발주자'로 낮추는 효과

분양시장 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단순 홍보가 아닌 전문화된 마케팅 기법을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단순히 장점만 나열하는 식의 홍보로는 수요자들을 유인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리더십의 법칙'을 적용, 분양 시장을 선점하려는 건설사들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리더십의 법칙은 마케팅 관련 필독서로 꼽히는 '마케팅 불변의 법칙'에서 가장 먼저 소개되는 것으로, 더 잘 만든 후발 주자보다 최초가 낫다는 이론이다.

장재현 부동산뱅크 팀장은 "건설사 입장에서는 '최초'라는 타이틀 하나로 이슈몰이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랜드마크로 포지셔닝하는 데도 유리한 게 사실"이라며 "이러한 이유로 최유을 강조한 마케팅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분석했다.

유승종합건설은 오는 3월 인천 남동구 구월 아시아드 선수촌 부지에서 분양 예정인 '구월 보금자리지구 현대플 퍼스티지'에 지역 최초로 테라스하우스와 펜트하우스, 캠핑장 등을 적용했다. 또 인근에서는 보기 드물게 전용면적 94㎡ 30평대에 5베이 설계를 선보일 계획이다.

같은 달 평창 동계올림픽 선수촌 부지로 조성되는 강릉 유천지구에서는 우미건설이 첫 민간 아파트 분양에 나선다. 강릉에서는 처음으로 채광과 통풍에 우수한 4베이·4룸 판상형 구조로 설계된 게 특징이다. 662가구 모두 전용면적 84㎡ 이하 중소형으로 이뤄졌다.

포스코건설이 3월 분양하는 '갈매 더샵 나인힐스'는 경기도 구리시 구리갈매지구 최초로 공급되는 민간 분양 아파트다. 2차 보금자리지구 중 서울과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했으며, 전 가구 중소형으로 이뤄졌음에도 판상형 4베이 위주로 설계해 채광을 극대화했다.

현대엠코는 이달 대구 달성군 세천지구 내 지역 최초의 엠코타운 '북죽곡 엠코타운 더 솔레뉴'를 분양한다. 대구 첫 진출인 만큼 1096가구 모두 정남향으로 설계해 채광과 통풍에 신경을 썼고, 공간과 수납을 극대화한 친환경 단지로 조성할 예정이다.

/박선옥기자 pso1020@metroseoul.co.kr

## 20대 신용 무너뜨린 금융위기

### 청년 대출자 열명 중 셋 7~10등급으로 떨어져

20대 청년 대출자 10명 중 3명꼴로 금융위기 이후 '저신용자'로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이장연 한국은행 거시건전성분석국 연구원이 발표한 '금융위기 이후 저신용 가계차주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권 가계대출자 중 20대와 무직·자영업 대출자가 금융위기 이후 저신용자로 하락한 비율이 높았다.

지난 2008년 6월 말 당시 중신용(5~6등급) 대출자의 평균 25.2%, 고신용(1~4등급) 대출자의 평균 7.2%가 2013년 6월 말 현재 저신용(7~10등급)으로 떨어졌다.

연령대별로 20대 중 고신용(1~6등급)이었던 대출자 중 27.9%가 금융위기 이후 '저신용자'가 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30대가 16.2%로 높았으며 40대가 14.0%였다.

직업별로는 무직(17.2%)과 자영업자(11.6%)의 저신용 하락 비율이 임금근로자(9.9%)를 크게 상회했다. 특히 임금근로자에서 자영업이나 무직으로 전환될 경우 저신용 하락률이 각각 8.1%포인트, 5.5%포인트로 크게 상승했다. 이와 함께 저신용자가 될 경우 고금리 대출 이용 비중이 높아지고 다중 채무도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민지기자 minji@

## 공공요금·집세 탓 1월 물가 1.1% 상승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달과 같이 1% 초반대를 이어갔다. 그러나 전기·수도·가스 요금은 크게 올랐고, 집세와 중학생 학원비 오름폭도 물가 상승률을 상회했다.

4일 통계청이 발표한 '1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작년 같은 달보다 1.1% 상승했다. 생활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0.6%, 전월과 비교해서는 0.8% 올랐다. 신선식품지수는 작년 같은 달보다 12.9% 하락했으나 지난달보다 4.5% 상승했다.

품목 성질별로 보면 공공요금과 집세가 물가 상승을 주도했다. 전기·수도·가스가 전월 대비 2.3%, 전년 동월 대비 6.0% 올랐다. 도시가스(10.9%)와 지역난방비(4.9%), 전기료(2.7%)가 한 해 전보다 인상됐기 때문이다.

집세는 한 달 전보다 0.2%, 한 해 전보다 2.4% 각각 상승했다. 전세(전년비 2.9%)와 월세(1.4%) 모두 올라 최근의 전월세난을 반영했다.

/유주형기자 [illegible]

"2월 5일은 이온데이" 4일 서울 한강로3가 이마트 용산점에서 모델들이 2월 5일 이온(I-ON)데이 행사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이마트는 이온음료의 발음이 유사한 2월 5일을 이온데이로 지정해 오는 11일까지 주요 인기 이온음료를 반값에 판매하는 관측 행사를 진행한다.

/신세계 제공

# 저축은행 '부실채권 6조3000억' 감축 전쟁

## 금감원, 반기별 이행 독려

금융감독원은 4일 저축은행의 부실 채권 감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현재 전체 여신 29조1000억원 가운데 저축은행의 부실 채권 액수는 6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저축은행의 부실 채권(고정이하 여신) 비율은 21.5%를 기록했다.

이 비율은 2010년 6월 말 10.6%에서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2011년 19.4%로 뛰고서 2012년 20.5%로 늘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구조조정 후 총 여신 규모가 줄고 엄격한 자산 건전성 분류가 적용되는 등 부실 채권 비율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 부실 채권 감축을 위해 일반 채권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채권을 구분해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반기별 목표 비율을 세웠다.

일반 부실 채권의 경우 부실 비율 20% 이상인 저축은행은 매 반기 5%포인트 이상씩 감축해 원칙적으로 15~20% 선까지 낮춰야 한다.

부실 비율 10~20%인 저축은행은 최소 10%까지 감축해야 한다.

부실 비율이 10% 이하더라도 종도에 감축 기준 초과가 발생한 곳 역시 감축 추진 대상에 포함된다.

저축은행들은 반기별 이행 실적과 미이행 시 사유 및 대책을 저축은행중앙회를 통해 금감원에 제출하게 된다.

감축 이행 기간은 부실 채권 비율에 따라 올해 말에서 오는 2016년 말까지 차등화한다.

PF 부실 채권은 2016년 말까지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 비율 위반 여부와 PF대출 만기 등을 고려해 저축은행이 자체적으로 반기별 목표 비율을 설정하게 된다.

매 반기 추정 손실분을 나눠 전액 대손상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저축은행의 부실 채권 비율은 다른 금융업종(평균 2.2%)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 금융투자가 6.6%로 가장 높고 신협 5.2%, 여전 2.5%, 은행 1.8%, 보험 0.7% 순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중앙회 내 부실 채권 감축 협의체를 구성해 업계 공동으로 추진해나갈 예정"이라며 "저축은행이 부실 금융사 이미지를 탈피해 내실 있는 경영 기반을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모바일 '유플러스tv G' 소치 생중계** LG유플러스는 모바일 IPTV 서비스 'U+HDTV'와 세계 최초 4채널 동시 시청 서비스를 제공하는 'U+tv G'에서 '2014 소치 동계올림픽' 실시간 중계를 제공한다고 4일 밝혔다. /LG유플러스 제공

# '기업 호감도' 2년만에 상승

국내 기업에 대한 호감도가 2년만에 상승 반전했다. 이는 지난해 세계경제의 침체 속에서도 기업의 경쟁력 향상 노력으로 수출과 경상수지 흑자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의 성과가 나타난 것이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반면 재계 오너의 구속 등으로 인한 '비윤리적 경영'과 '고용 창출 노력 부족' 등은 비호감 요소로 꼽혔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최근 현대경제연구원과 전국 20세 이상 남녀 1000여 명을 대상으로 '2013년 하반기 기업호감지수(CFI)'를 조사한 결과, 100점 만점에 51.1점으로 집계됐다고 4일 밝혔다.

지난 상반기 대비 각 요소별 점수 변화를 살펴보면 '생산성 향상'(61.7→67.8점)이 6.1점 상승했고 '국가 경제 기여'(51.2→54.5점)가 3.3점, '국제경쟁력'(74.8→76.6점)이 1.8점, '윤리 경영 실천'(23.7→25.2점)이 1.5점 오르는 등 대부분의 점수가 상승했다. 호감도의 전반적인 상승에도 불구하고 '사회공헌활동'(49.9점), '윤리경영 실천'(25.2점)은 보통보다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반면 호감이 가지 않는 이유로 '비윤리적 경영'(38.4%), '고용 창출 노력 부족'(21.2%), '사회공헌 등 사회적 책임 소홀'(20.7%), '기업 간 상생 협력 부족'(19.2%) 등을 지적했다. /김태균기자

# 평 대신 ㎡, 돈 대신 g 사용 확산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기표원)은 지난 2007년부터 법정 계량단위 사용 정착을 위한 계도와 단속 결과 부동산 토지면적 단위인 제곱미터(㎡), 귀금속 무게의 단위인 그램(g) 등 법정 계량단위 사용이 인터넷, 부동산 중개사무소 광고 등 생활 주변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기표원은 지난 2007년부터 비법정 계량단위인 평·돈 사용을 금지하고 법정 계량단위인 ㎡, g 단위를 사용토록 홍보하고 있다. 이어 2010년 6월부터 신문 광고에 평·돈을 사용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윤주영기자 hnews

# 삼성-LG '디스플레이 결투'

## 유럽서 개막한 세계 최대 B2B 전시회 'ISE 2014'서 최신 기술 경쟁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디지털 사이니지 등 최첨단 디스플레이 시장 주도권을 놓고 유럽 시장에서 자존심 경쟁에 나섰다. 무대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4일부터 3일간 열리는 유럽 최대 기업간거래(B2B) 디스플레이 전시회인 ISE(Integrated Systems Europe) 2014다. ISE는 전 세계에서 4만5000여 명이 참석하는 최대 규모의 B2B 사업 관련 전시회다.

삼성전자는 업계 최대 규모인 816㎡의 부스를 마련해 매장·회사·공항·호텔 등 각각의 환경에 최적화된 디스플레이 솔루션을 선보이며 유럽의 상업용 디스플레이 시장 공략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우선 독자적인 디지털 사이니지 플랫폼인 '삼성 스마트 사이니지 플랫폼'의 신규 버전을 공개한다. 지난해 ISE 전시회에서 최초 공개된 스마트 사이니지 플랫폼은 올해 새롭게 업그레이드돼 삼성전자의 2014년형 LFD(Large Format Display) 제품에 탑재된다.

삼성전자는 전시장 전면에 세계 최고 수준의 3.5mm 초슬림 베젤을 적용한 LFD(UD55D) 54대로 구성된 대형 '멀티 비전 타워'를 조성하고, 웅장한 화면으로 관람객을 맞는다. 또 세계 최대 크기의 110형 UHD LFD도 이번 전시회에서 처음 공개한다. 삼성전자는 110형 UHD LFD 제품의 업계 최대 크기와 뛰어난 화질을 통해 전 세계 UHD 상업용 디스플레이 시장을 선도한다는 전략이다.

이밖에 95형 LFD(ME95C)를 통해 실제와 동일한 크기로 보여주는 제품 영상을 확인할 수 있으며, 쇼윈도로 꾸며진 공간에서는 수많은 제품을 가상 체험할 수 있다.

레스토랑 메뉴 보드의 각종 프로모션 정보를 삼성전자의 디스플레이 솔루션으로 쉽게 업데이트해 보는 체험도 가능하고, 호텔 방으로 꾸민 공간에서는 간단한 조작만으로 호텔 투숙객이 필요로 하는 TV 콘텐츠를 손쉽게 제공하는 혁신적 호텔 솔루션을 체험할 수 있다.

LG전자는 이번 전시회에서 105형, 98형, 84형 등 초대형 울트라HD 디지털 사이니지를 전면에 부각시킨다. 초대형 크기의 105형 울트라HD 사이니지는 21대9 화면 비율로 사물 및 사람을 실제 비율로 실감 나고 섬세하게 구현해 의류·자동차 매장 등에 안성맞춤이다.

LG전자는 웹 운영체제(OS)를 탑재한 스마트 호텔 TV도 선보인다. 웹OS 탑재 호텔용 스마트 TV는 호텔 투숙객이 쉽고 편리한 사용자환경(UI)을 통해 호텔 소개, 주변 명소, 엔터테인먼트 등의 필요한 정보를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한다.

LG전자는 거울과 고성능 터치스크린을 겸하는 'LG보드'도 선보인다. LG보드는 패션 매장에서 거울로 사용하다 매장 고객이 디스플레이의 '옷 입어보기' 기능을 통해 실제 입어보지 않고 다양한 각도로 자신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김태균기자 ktkim@metroseoul.co.kr

4일(현지시간)부터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열리는 유럽 최대 기업간거래(B2B) 디스플레이 전시회 ISE 2014에서 첫선을 보인 업계 최초·최대 크기의 삼성전자 110형 UHD 상업용 디스플레이. /삼성전자 제공

# 토요타-BMW 합작 스포츠카 기대 만발

## 일각선 "렉서스 LFA나 BMW Z4 후속" 전망도

토요타와 BMW의 스포츠카 공동 개발 프로젝트가 시작된 가운데 그 첫 작품이 언제 나올 것인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두 업체는 지난 2013년 1월에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맺기로 한 바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스포츠카의 공동 개발이다. 토요타와 BMW는 2013년 말까지 타당성 조사를 한 후에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로 하고 지난해 동안 프로젝트를 진행해왔다.

두 업체의 개발 조정은 중형급 스포츠카 플랫폼을 공동 개발해 이 플랫폼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이용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구체적으로 어떤 차종이 적합한지 자료를 수집해왔고, 이 조사가 지난해 끝났다. 따라서 이제는 구체적인 개발 방향이 설정돼 플랫폼 설계 단계가 진행되고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 프로젝트가 렉서스 LFA의 후속 또는 BMW Z4의 후속에 적용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LFA는 슈퍼카 프로젝트로 개발된 차종이어서 이보다 낮은 등급의 차가 유력하다는 관측도 있다. 따라서 BMW Z4 후속도 후보로 떠오르고 있다.

이들 차종 외에 아예 새로운 차급으로 개발될 수도 있다. BMW로서는 M3와 M5 사이를 메우는 차종이 될 가능성이 높다. 토요타에서는 '86' 위에 자리하는 차종이 비어있는 상태다.

토요타와 BMW는 2011년 11월에 클린 디젤 엔진 분야에서 제휴키로 합의했고, 2012년 6월에는 연료전지 시스템을 공동 개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또한 강화 플라스틱을 이용한 차체 경량화와 차세대 배터리 개발도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가 결실을 맺을 경우 업계에 큰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두 업체의 공동 개발 스포츠카는 이르면 올가을 열리는 파리 모터쇼에서 콘셉트카 형태로 공개될 전망이다. /유리기자 ferrari5@

# 로밍 특명 "소치와 접속"

## 올해 동계올림픽·브라질 월드컵 개최 앞두고 이동통신 3사 서비스 국가 확대 등 경쟁 뜨거워

/KT 제공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8일(한국시간) 개막하는 '2014 소치 동계올림픽', 6월 열리는 '브라질 월드컵' 등을 앞두고 로밍 서비스 강화에 나서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러시아와 월드컵이 열리는 브라질을 비롯해 데이터 무제한 로밍 서비스 제공 국가를 최근 123개국으로 확대했다.

지난 2011년 6월 29개국을 대상으로 데이터 무제한 로밍 서비스인 'T로밍 데이터 무제한 원패스(One Pass)'를 출시한 SK텔레콤은 약 2년7개월여 만에 서비스 지역을 4배가량 늘렸다. 'T로밍 데이터 무제한 원패스'는 1일 9000원으로 이용이 가능해 국내 이동사가 제공하는 무제한 데이터 로밍 서비스 중 가장 저렴하다.

아울러 SK텔레콤은 해외에서도 국내와 같은 롱텀에볼루션(LTE) 네트워크 환경을 이용할 수 있는 LTE 로밍 서비스를 캐나다, 일본, 싱가포르, 홍콩 등 7개국에 제공 중이다.

KT는 무제한 데이터 로밍 117개국, LTE 로밍 12개국, 음성 로밍 225개국에서 각각 서비스하고 있다.

특히 동계올림픽 시즌을 맞아 러시아를 비롯해 캐나다, 말레이시아 등 LTE 로밍 서비스 지역을 확대했다. 러시아의 경우 동계올림픽 공식 이동사인 메가폰(Megafon)과의 제휴를 통해 LTE 로밍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3, LG G2, 애플 아이폰5S·5C 등을 이용하고 있다면 메가폰의 LTE 네트워크를 통해 로밍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LG유플러스 역시 1일 1만원에 이용할 수 있는 '무제한 데이터 로밍' 서비스를 미국, 중국, 일본, 독일 등 전 세계 주요 85개국에서 제공하고 있다.

LTE 로밍 서비스 역시 싱가포르와 홍콩 등 2개 국가에서 제공하고 있지만 휴대전화 직접 로밍이 아닌 별도의 휴대용 기기(라우터)를 통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이는 LG유플러스 전용 휴대전화의 경우 주파수가 해외에서 많이 이용하지 않는 대역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LTE 로밍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인천공항 LG유플러스 로밍센터에서 LTE 라우터를 대여(1일 1만5000원)하면 보다 빠른 데이터 로밍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업계 관계자는 "해외여행객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다 올해는 올림픽과 월드컵 등 행사까지 겹쳐 해외에서도 자유롭게 로밍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혜택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영기자 ljy0403@metroseoul.co.kr

# 英선 갤럭시 기어 '0원'

## 판매 저조·후속작 출시 임박 몸값 '뚝' … 인도선 66% 할인

삼성전자가 지난해 야심차게 내놓은 웨어러블 기기 갤럭시 기어(사진)의 가격 인하에 나섰다.

3일(현지시간) 인도 언론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9월 2만2990루피(약 40만원)였던 갤럭시 기어 출고가를 같은 해 12월 1만9075루피(약 33만원)로, 이달에는 1만5290루피(약 26만5000원)로 전격 인하했다. 이는 출시 가격 대비 66%대로 낮아진 것.

국내에서 역시 출고가 39만6000원이던 갤럭시 기어를 단품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10만원 할인 이벤트를 실시하며 가격을 낮추고 있다.

심지어 영국에서는 무료로 제공되는 일도 벌어졌다. 앞서 지난해 11월 영국 휴대전화 판매업체 폰스포유는 갤럭시 노트3를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갤럭시 기어를 무료로 제공하기도 했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후속작인 '갤럭시 기어2' 출시를 위한 과정이라는 의견과 함께 갤럭시 기어의 판매 성적이 기대치에 못 미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편 갤럭시 기어는 출시 당시 삼성전자 임원이 '덜 익은 토마토'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구설수에도 오른 바 있다. 실제로 가격 대비 효용성에 대해서도 큰 매력을 얻지 못한다며 질타를 받기도 했다. /이재영기자

# kt금호렌터카 '법인차량 관리 서비스' 첫선

국내 렌터카 1위 브랜드인 kt금호렌터카(대표 이희수)는 업계 최초로 법인 및 단체 고객의 차량 운행 정보를 통합 관리해 간편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인차량관리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4일 밝혔다.

kt의 정보통신기술(ICT)기술을 접목한 kt금호렌터카 '법인차량 관리 서비스(FMS, Fleet Management Service)'는 기본적인 차량 관리와 운영 비용 체계 관리 및 운행 관련 통계 분석까지 차량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고객에게 상세히 제공한다.

이번에 기능을 업그레이드해 선보이는 상품은 기존 법인차량 관리 서비스에 카셰어링의 자원 공유 기술이 더해져 모바일과 온라인으로 차량 운행에 대한 실시간 정보를 그룹 사용자에게 공유해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이 가능하다.

이 서비스는 모바일이나 온라인을 활용해 간편하게 차량 이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예약할 수 있고, 모바일 앱이나 회원카드(사원증)를 통해 손쉽게 차량 개폐 및 이용이 가능하다. /김민지기자

# SK컴즈·아프리카TV 동계올림픽 특집페이지 오픈

소치 동계올림픽을 더욱 편리하게 즐길 수 있다.

SK커뮤니케이션즈는 태극전사들의 선전과 현장의 열기를 생생하게 전달할 특집 페이지'를 소치 올림픽 4일 오픈했다.

이번 특집 페이지(sports.news.nate.com/sochi2014)에서는 실시간으로 전하는 올림픽 관련 뉴스 외에도 소치 올림픽 상세 일정 및 경기 결과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데일리 소치'를 비롯해 유무선 고화질 생중계, 하이라이트 동영상 등을 만날 수 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플랫폼 아프리카TV도 특집 페이지를 마련하고 올림픽 전 경기를 모바일과 PC에서 생중계한다. /박성훈기자

# 해외 확장 속도내는 토종 프랜차이즈

## 한식 세계화 '리터치 인 코리아' 앞세워
## 프랑스·북미·호주 시장 등 잇따라 진출

국내 토종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외국의 원조 업체들과 경쟁을 두려워하지 않고 '리터치 인 코리아(Retouch in korea)'를 앞세워 글로벌 영역 확장을 가속화하고 있다. 김치, 불고기 등 우리 고유 음식이 아닌 이국 재료의 음식들에 한국 문화를 덧붙여 접목하면서 한국식의 세계화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른바 '한식(韓式) 세계화'는 '한국에서 커피를 파는 격'이라는 우려에도 글로벌 진출을 시도해 성공을 거두고 있는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올해도 시장 개척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먼저 리터치 인 코리아의 본격적인 제과업체 파리바게뜨는 세계 베이커리의 중심으로 알려진 프랑스 파리 입성을 준비하고 있다. 중국·미국·싱가포르·베트남 등에 170여 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이 업체는 지난해 뉴욕에서의 성공을 바탕으로 곧 프랑스에도 진출해 세계적 브랜드로 발돋움하겠다는 것이다.

파리바게뜨는 뉴욕에서 테이크아웃 위주의 주변 제과점과 달리 국내처럼 매장을 넓게 하고 300종 이상의 다양한 제품을 선보였다. 카페처럼 쾌적한 분위기에서 다양한 빵을 고르고 즐길 수 있는 점이 현지인들에게 차별화 포인트로 작용했다. 경쟁사들보다 다양한 빵을 경쟁력으로 할 수 있었던 배경은 자체 개발한 '테이크 오프 시스템(take off system)' 때문이라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이 업체는 영하 28~35도에서 발효를 정지시킨 '휴면 반죽(dormant dough)'을 각 지점으로 배송하고 매장에서 최종적으로 오븐에 구워 빵을 완성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상속자들'에서 망고주스를 마시고 있는 한류스타 이민호(사진 왼쪽)와 김우빈. /망고식스 제공

프리미엄 디저트 카페 망고식스는 지난해 미국, 중국, 러시아 등 3개국에 매장을 연 데 이어 올해는 북미·호주 시장 진출과 중국에서의 저변 확대를 노리고 있다. 이 업체는 망고를 이용해 10여 종 이상의 다양한 망고 메뉴를 개발했다. 여기에 한류를 덧입어 지난 해 론칭 2년 만에 중국에 매장을 열며 글로벌 진출에 성공했다.

한류 열기가 뜨거운 중국 상하이 망고식스 매장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망고&코코넛'은 망고와 코코넛 밀크를 혼합한 음료로 현지에서 '김우빈 주스'로 통한다. SBS 드라마 '상속자들'에서 주인공이 즐겨 마시는 메뉴로 등장하며 현지인들에게도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이전에 '신사의 품격'에 노출시켰던 메뉴 '블루레몬에이드'도 '김하늘 주스'로 불리며 인기를 끌고 있다.

토종 커피전문점들의 한식(韓式) 마케팅도 주목을 받고 있다.

할리스커피는 지난 2010년 커피의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남미 페루에 매장을 오픈했으며 중국·태국 등으로 글로벌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이 업체는 페루 현지인들이 단맛을 좋아한다는 조사를 바탕으로 국내에서 개발한 고구마라떼 등 색다른 우리식 메뉴를 앞세워 좋은 반응을 얻으며 2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중국 선전 OCT 베이징에서는 커피 외에도 브런치 등을 즐길 수 있는 키친 콘셉트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 밖에도 카페베네 뉴욕 매장은 한국에서 공수해 간 미숫가루로 뉴요커들에게 '미수가루 라떼'를 선보이고 있으며 탐앤탐스는 미국·태국 매장에 한국에서처럼 24시간 영업방식을 도입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정영일기자 eris@metroseoul.co.kr

## 기업에 부는 '재능 기부' 열풍

'추운 올겨울, 따뜻한 기부'

각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규모가 커지고 방식도 다양해지고 있다. 사회공헌활동이 시작된 초기에는 기업들이 단순한 기부 수준의 활동이 전부였는데 최근 몇 년 사이 사회공헌활동은 시간과 재능 등으로 이웃을 돕는 '재능기부'로 전환하고 있는 것이다. 재능기부는 기업이 가진 재능을 기업의 이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에 기부해 공헌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또한 다양한 재능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다양한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나눔의 지속성과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최근에는 생활 밀착형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재능기부를 통해 소비자나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나눔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세탁 전문 프랜차이즈 크린토피아는 졸업식 및 입학식 시즌을 맞아 5월까지 '깨끗한 교복 물려주기(사진)'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이 캠페인은 학부모들의 교복 가격 부담을 줄이고, 자원은 절약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로 입지 않는 교복을 모아 세탁 후 교복이 필요한 학생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크린토피아에서 교복을 무료로 세탁해주는 교복 물려주기 실천 운동이다.

이번 행사는 교복 물려주기 운동에 동참하는 전국(제주도 및 일부 지역 제외)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교복 세탁이 필요한 약 100여 개의 학교를 선정해 크린토피아가 직접 방문, 수거된 교복을 깨끗하게 세탁한 후 다시 학교로 전달해준다.

SPC그룹은 파리바게뜨·파리크라상·던킨도너츠·삼립식품 등 사내 봉사단이 빵을 싣고 소외계층을 찾아가는 활동인 'SPC 행복한 빵 나눔 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SPC 행복한 빵 나눔차'는 단순한 기부를 넘어 소외된 이웃을 SPC그룹 임직원들이 직접 찾아가 맛있는 빵과 행복을 전하기 위해 기획된 프로그램으로 매일 하루 평균 1000개씩 연간 25만 개의 빵을 전국의 사회복지시설과 농어촌 소외지역에 전달하고 있다.

또 지난 2010년부터 신정여자상업고등학교 학생들을 선발해 무료로 제과제빵 교육을 시키는 등의 나눔도 진행하고 있으며 2012년 1월 15일의 제1기 교육생을 배출해 15명 모두 파리크라상과 비알코리아에 직원으로 채용하기도 했다.

/정영일기자

조명에 변하는 '클럽 보틀' 하이네켄은 4일 UV 조명을 받으면 화려한 디자인이 나타나는 '클럽 보틀(Club Bottle)' 제품을 새롭게 선보였다. /하이네켄 제공

## 새콤·달콤·상큼… 열대과일 첨가주 잘 나가네

주류업계에 열대과일 과즙을 첨가한 술이 인기를 끌며 속속 등장하고 있다.

그동안 사과·포도 등 익숙한 맛에서 벗어나 자몽·파인애플·라임 등 열대과일 맛으로 차별화해 새로운 맛의 주류 제품을 내놓고 시장 잡기에 나서고 있는 것.

우리나라 사람들의 입맛이 국제화되고 해외여행 경험이 늘면서 열대과일에도 익숙해진 가운데 다양한 연령층의 입맛에 맞춘 제품을 앞다퉈 선보이고 있는 것이다.

열대과일을 첨가한 제품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꼽히는 것이 국순당 '캔막걸리 아이싱'(사진)이다. 이 제품은 자몽 과즙을 첨가해 열대 과일과 전통주인 막걸리의 조화로 젊은층에서 새로운 막걸리 트렌드 상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국순당은 젊은층이 선호할 맛의 막걸리 개발을 위해 젊은층이 해외 유학 등으로 다양한 맛을 경험한 점에 착안, 막걸리에 어울리는 열대과일 연구를 진행하고 새콤한 맛이 특징인 자몽을 찾아내 제품화했다고 한다.

'아이싱'은 지난 2012년 8월 출시 이후 월평균 50만 캔 이상이 판매됐다. 이는 기존에 시중에 판매 중인 국순당 캔막걸리의 월평균 판매량 20만 캔을 훨씬 뛰어넘는 실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보드카 시장에서도 에드링턴 코리아의 경우 파인애플·코코넛·모스카토 등 열대과일을 사용한 '스카이 보드카 인퓨전(INFUSIONS)' 신제품 3종을 지난 1월 출시했다.

상큼한 맛의 '파인애플', 부드럽고 크리미한 향의 '코코넛', 달콤한 포도 향을 지닌 '모스카토' 등 3종으로 구성됐다.

스카이 보드카 인퓨전 제품은 천연 과일을 사용해 풍부하고 선명한 과일 맛을 맛볼 수 있으며, 기존 보드카 제품들이 40도의 고도주였던 데 반해 신제품 3종은 35도로 도수도 낮아 여성들과 다양한 칵테일을 즐기는 젊은이들에게도 인기가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디아지오코리아가 지난해 말 출시한 '모히토 스미노프(Mojito By Smirnoff)'는 스미노프를 베이스로 해 열대과일인 라임 향과 신선한 민트 향이 어우러진 상쾌한 맛을 특징으로 한 제품이다.

/정영일기자

# 러브레터 쓰면 선물받는 데이!

## 패션브랜드마다 밸런타인 마케팅

밸런타인데이(2월 14일)를 앞두고 패션업계가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했다. 연인에게 선물하기 좋을 만한 아이템도 대거 선보였다.

패션 브랜드 쿠론은 '센드 유어 러브' 행사를 진행한다. 14일까지 쿠론 공식 홈페이지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작성하면 추첨을 통해 샘러인, 쿠론의 스테파니 쿠이스백, 코튼 지갑 등을 선물로 준다.

남성 캐주얼 브랜드 시리즈는 11~14일 이태원 매장에서 100명에게 20만원 상당의 '밸런타인 시크릿 박스'를 5만9000원에 선착순 판매한다. 또 12일까지 시리즈 공식 페이스북에서 '밸런타인 시크릿 박스 이벤트'를 실시한다. '좋아요'를 누른 뒤 댓글에 친구를 태그하면 5명에게 20만원 상당의 시크릿 박스를 증정한다.

MCM은 선물용으로 적합한 밸런타인 에디션을 선보였다.

경쾌한 캔디 컬러와 깔끔한 디자인이 돋보이는 지갑과 카드 케이스 등으로 '크로스백' 형태로 선보인 '미니'는 지갑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 실용적이다. 다크 초콜릿 색상의 '로빈슨 솔리드'는 비즈니스맨에게 어울릴 만한 지갑으로 가죽의 고급스러운 느낌을 살린 것이 특징이다. /박가희기자

## 뉴스 & 뉴스

### 네이처리퍼블릭 홍콩 1호점 왕자오 중심가에 오픈

● 화장품 브랜드 네이처리퍼블릭은 4일 홍콩 왕자오 중심가에 현지 1호점을 열었다고 밝혔다.

홍콩 1호점은 패션 및 뷰티 스토어가 밀집한 왕자오 중심가에 들어선 99㎡ 크기의 로드숍이다. 네이처리퍼블릭은 홍콩을 방문하는 관광객 중 70%가 중국인인 점을 고려해 이 매장을 중국 내 전략적 요지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 리복 피트니스 슈즈 '엑소핏' 뉴욕패션쇼 출품

● 리복은 디자이너 고태용과 협업한 대표 제품 '엑소핏'을 뉴욕 패션쇼에서 선보인다고 4일 밝혔다.

엑소핏은 1983년 남성 피트니스 슈즈로 출시됐으며 국내에서는 2008년 디자이너 정욱준과의 협업으로 '엑소핏 비아준지'라는 이름으로 나왔다. 이번에 새롭게 선보일 엑소핏은 오리지널 버전의 간단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디자인이 특징이다.

CJ '아르바이트 특전' 공채 신입사원 첫 탄생 CJ그룹은 지난 8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계열사 사업장 내 아르바이트 근무 유경험자에게 신입사원 공채의 서류전형을 면제해주는 이른바 '수퍼패스' 제도를 통해 첫 2명의 최종 합격자가 탄생했다고 밝혔다. /CJ그룹 제공

# '칫솔 친구'랑 웃으며 등원

유치원 준비물 구매 요령

### 물티슈-항균 기능 있는 것
### 물병-보온·보냉 돼야 실용
### 양치도구-캐릭터 제품을

유치원과 어린이집 입학 시즌을 앞두고 엄마들이 분주하다. 준비물 중 하나라도 면역력이 약한 아이에게 유해하지 않은지, 디자인은 세련됐는지 등 따져볼 것이 많다. 이벤트코리아 관계자는 "입학 전에 필요한 물건을 미리 준비해 아이에게 사용법을 가르치면 낯선 유치원 생활에 적응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며 준비물 구매 요령을 소개했다.

유치원 준비물은 아이가 혼자서 사용하기 편리한 제품을 골라야 한다. 특히 아이가 스스로 자신의 물건이라고 여길 수 있도록 직접 선택하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손이나 얼굴에 묻은 음식물이나 장난감을 닦는 물티슈는 아이 피부에 직접 닿는 만큼 성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유기농 제품이나 항균효과가 있는 제품을 사면 더욱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오가닉스토리 '유칼립투스 아기 물티슈'는 유기농 허브 원료를 첨가해 민감한 아기 피부를 보호하고, 도톰하고 부드러운 원단으로 사용감이 우수하다.

공동으로 쓰는 식기는 바이러스 감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개인 식기류 역시 필수 준비물이다. 특히 수시로 마시는 물컵이나 물병 등은 매일 씻으며 위생에 신경 써야 한다. 이왕이면 보온·보냉 효과가 있는 제품이 실용적이다. 누비 '베이비 텀블러 스텐 손잡이 빨대컵'은 양쪽에 손잡이가 달려있어 아이 혼자서도 음료수를 흘리지 않고 마실 수 있게 도와준다.

유치원에서 식사하는 경우 아이가 혼자 양치질을 해야 하므로 미리 연습을 해둬야 한다. 특히 아이가 양치질을 놀이처럼 느낄 수 있게 아기자기한 캐릭터 디자인이 가미된 칫솔을 고르는 게 좋다. 또 구입 전 아이 손으로 잡기 편한 사이즈인지, 잇몸을 보호할 수 있는 부드러운 모를 사용했는지를 확인한다.

마이비 '치치 유아용 칫솔 스텝3'은 부드러운 실리콘 모를 사용해 자극이 적고 고무 재질의 손잡이를 적용해 손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해준다.

/박지원기자 nar@metroseoul.co.kr

# 무제한 와인·세미 뷔페…로맨틱 5코스

## 르네상스 서울 '호라이즌' 14일 밸런타인 특별메뉴

르네상스 서울 호텔이 밸런타인데이를 기념한 스페셜 메뉴를 14일 단 하루 동안 호텔 스카이 라운지 바 클럽 호라이즌에서 선보인다.

호텔은 연인들을 위한 특별한 날을 맞아 낭만적인 분위기 속에서 즐길 수 있는 무제한 와인과 세미 뷔페 스타일의 5코스 요리를 스페셜 메뉴로 마련했으며 애피타이저와 디저트는 별도의 섹션에서 뷔페 스타일로 즐길 수 있도록 준비한다.

또 마늘 크루통을 넣은 버섯 크림 수프의 메인 요리는 테이블로 직접 서빙되며 커플들은 세 가지 메인 요리(안심, 등심 스테이크 또는 연어 구이)를 기호에 따라 직접 선택할 수 있다.

디저트로는 각종 계절 과일과 케이크가 제공되고 커피 또는 차로 풍성하면서도 달콤한 식사를 마무리할 수 있다. 게다가 레드 와인과 화이트 와인 모두를 무제한으로 맛볼 수 있다.

더욱이 호텔은 감미로운 음악으로 로맨틱한 분위기를 연출할 계획이며 이날 모든 방문 커플에게 장미꽃 한 송이씩을 선사할 예정이다.

밸런타인데이 스페셜 메뉴 가격은 1인당 8만5000원(세금 및 봉사료 포함)이다.

문의 02)2222-8639 /황재용기자

# '상속자' 이민호, 제주항공의 새 얼굴

'핫'한 남자 이민호가 제주항공에 떴다.

저비용항공사(LCC)인 제주항공은 아시아 시장 확대를 위해 드라마 '꽃보다 남자'로 스타덤에 오른 뒤 '시티헌터' '상속자들'에 출연하며 한류스타로 자리매김한 배우 이민호와 모델 계약을 체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제주항공의 새 얼굴이 된 이민호는 향후 1년간 제주항공의 인쇄 광고와 각종 온·오프라인 영상물, 항공기 내·외부 광고물 등에 제주항공의 기업 브랜드를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된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한류의 중심에 선 배우 이민호를 모델로 선정함으로써 아시아권에서 제주항공의 브랜드 인지도와 기업 이미지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피로 풀땐 홍경천…긴장 해소엔 테아닌

## 명절증후군 해소에 도움되는 건강기능식품

매년 명절 무리한 가사 노동과 장거리 운전 등으로 피로와 긴장 축적, 또 오랜만에 만난 친지들과 즐거운 마음에 먹은 술과 음식들로 인한 소화불량 등 '명절증후군' 종류도 다양하다.

명절증후군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이번 설은 예년보다 연휴 기간이 짧아 평소 생활 리듬으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 그렇다고 명절증후군을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각종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이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는 설 명절증후군을 호소하는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을 소개했다. 해당 성분은 모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기능성을 인정받은 것으로 안심하고 섭취해도 좋다.

**◆목욕하면 부신 기능 촉진 도움**

명절에 주부들은 평소보다 고된 가사 노동에 시달리기 십상이다. 무리한 가사 노동과 수면 부족으로 신체가 피로해지면 근육이 수축되고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여러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

피로를 풀기 위해서는 가벼운 운동과 함께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이와 함께 목욕을 하면 부신 기능을 촉진시켜 피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또 육체적 피로 해소, 면역력 증진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홍삼·인삼이나 스트레스로 인한 피로 해소에 도움을 주는 홍경천 추출물 등의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가벼운 운동으로 스트레스 해소**

명절이면 주부들은 시댁 식구들과 무심한 남편에 대한 서운함에, 남편들은 처가 눈치 보느라, 미혼 남녀는 결혼·취업 등을 걱정해주는 친척 덕에 제각각 만만찮은 스트레스에 시달린다고 한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듯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우리 몸은 호흡이 빨라지고 소화기능은 떨어지며, 근육은 긴장하고 정신과 감각기관이 예민해진다. 이 상태를 장기간 방치하면 저항력이 떨어져 각종 질병에 노출되기 쉬우므로 충분한 휴식과 수면 혹은 평소 즐기는 운동과 여가 활동 등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스트레스로 인한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는 건강기능식품인 테아닌, 유단백 가수분해물 등을 섭취하는 것도 추천한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김수창 이사는 "명절증후군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빨리 일상생활 리듬을 되찾는 것이 관건이다"며 "충분한 휴식과 알맞은 건강기능식품 섭취를 통해 건강관리에 주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효임기자 prime@metroseoul.co.kr

# 온라인 마켓 초콜릿 할인 '달콤한 클릭'

## 11번가·티몬 쿠팡 등 밸런타인 이벤트 풍성

소셜커머스 업계를 비롯해 온라인 마켓들이 본격적인 밸런타인데이 행사에 돌입했다.

먼저 11번가는 미국·스위스·터키 등 세계 11개국의 인기 초콜릿을 할인 판매한다. 프리미엄 초콜릿으로 꼽히는 벨기에 '코어트프 브뤼프'는 정가 대비 36% 저렴한 8900원으로 1+1 구성이다. 매일 오전 11시 한 가지 제품을 특가에 선보이는 코너도 마련됐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고객 1100명에게는 구매 금액의 50%를 포인트로 적립해준다. 이와 별도로 국내 인기 초콜릿만 모은 '오독기 자기 되는 마법의 초콜릿' 코너도 별도 운영한다.

티몬도 '밸런타인데이 특별전'을 벌이고 있다. '밸런타인데이 당일까지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라는 주제하에 '초콜릿 베스트', '그를 위한 선물', '로맨틱 데이트'로 나뉜 메뉴를 선보인다.

'초콜릿 베스트'에서는 개성 있는 초콜릿을 직접 만들 수 있는 'DIY초콜릿' 관련 용품이 코코아파우더·휘핑크림 등과 함께 포장지까지 준비된다. '그를 위한 선물' 코너에서는 캘빈클라인과 타미힐피거의 지갑과 벨트 이외에도 세이코 손목시계, 구찌 남성용 반지갑 세트 등이 준비됐다.

/11번가 제공

쿠팡은 다양한 종류의 초콜릿을 비롯해 밸런타인데이 선물로 안성맞춤인 캐쉬 잡화, 화장품 등을 선보이는 '밸런타인데이 기획전'을 오는 11일까지 진행한다.

다양한 종류의 초콜릿을 최대 40% 할인된 가격에 제공하며 초콜릿과 곁들여 먹기 좋은 치즈케이크, 프레즐 등도 저렴한 가격에 제공한다. /양지원기자

# 자기야~ 허니문은 못 줄여!

## 전체 결혼비용 감소에도 신혼여행 지출 규모 증가

경기가 위축되면서 전체 결혼 비용이 줄고 있지만 새로운 목적지로 향하거나 고가의 허니문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하나투어는 최근 자사의 지난해 허니문 상품 판매 실적을 분석한 결과 결혼 비용을 간소화하는 추세 속에서도 허니문에 투자하는 비용은 되레 늘어나는 중이라고 밝혔다.

작년 한 해 한국인에게 가장 인기 있었던 허니문 여행지는 푸켓(23.6%)이었다. 세부와 보라카이 등 필리핀 지역이 13.2%로 그 뒤를 이었으며 코사무이(8.4%)와 발리(6.5%)도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또 허니문에 지출한 1인당 비용도 크게 증가했다. 200만원 미만 허니문 상품 이용객 비율이 전년 62.1%에서 48.6%로 줄었지만 200만~300만원 상품 이용객은 30.4%에서 38.2%로, 300만원 이상 고가 상품 이용객도 13.2%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이에 하나투어는 새로운 목적지로 향하는 허니문 수요가 늘어나고 고가의 허니문 상품이 인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결혼 전 다양한 여행 경험을 축적한 젊은 부부들이 허니문을 이색적인 지역으로 떠나길 원하고 있고 평생 간직할 추억 혹은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허니문을 만들기 위해 여행의 서비스와 품질을 중요시하는 풍조가 확산됐기 때문이다.

/[illegible]기자

# 170객실 규모 'JW 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 오픈

JW 메리어트 호텔&리조트가 4일 서울 동대문에 'JW 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을 오픈했다.

호텔은 서울에서 두 번째로 문을 여는 JW 메리어트 브랜드 호텔로 11개 층에 이그제큐티브 스카이 뷰 룸 19개, 스위트 룸 15개 등 총 170개 객실을 갖추고 있다.

또 야외 테라스 테이블에 앉아 흥인지문을 감상할 수 있는 더그리핀바(The Griffin Bar), 25m 크기의 실내 수영장, 클럽 501 피트니스 센터, 더 JW 스파 등의 부대시설도 들어섰다.

특히 호텔은 98개의 삼성 울트라 HD(초고해상도) TV로 연결된 첨단 미디어 월을 마련했으며 서울 시내 호텔 중 최초로 미국그린빌딩협회(USGBC)의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인 LEED 골드(Gold) 등급도 획득했다.

사이몬 쿠퍼 메리어트 인터내셔널 아시아 태평양 지역 사장은 "한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북아시아의 여행 허브다. 최선 중심지 동대문에 위치해 주요 관광 명소와 인접한 장점과 보물 1호인 흥인지문을 근거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특징을 바탕으로 한국에서의 브랜드 파워를 강화할 계획이니"고 말했다.

니콜라스 찌 JW 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 총지배인 역시 "새롭게 오픈하는 호텔은 JW 메리어트 브랜드 가치인 우아함과 친근한 럭셔리를 추구한다"며 "비즈니스, 레저 여행자 모두에게 진정한 럭셔리 경험을 선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개관 소감을 밝혔다.

/[illegible]기자

## 달콤 커피 '홍대광 무료 공연'

커피 프랜차이즈 달콤의 브랜드 '달콤커피'가 '2월의 아티스트'로 가수 홍대광(사진)을 [illegible] 오후 2시부터 달콤커피 [illegible]점에서 '베란다 라이브 무료 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번 콘서트는 인기 케이블 드라마 '응답하라 1994'의 동명 소설 출간 기념 전시와 함께하는 이벤트로 홍대광은 이번 EP앨범 타이틀곡 '답이 없었어'와 '응답하라' OST 등 여심을 사로잡는 목소리와 감미로운 노래를 선사할 것으로 회사측은 기대하고 있다.

## 토익 '스펙거품' 감소 신입사원 평균 662점

토익점수는 일정 수준만 넘기면 무관하다는 기업이 절반에 육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취업포털 사람인은 지난해 하반기에 신입사원을 뽑은 회사 270곳을 대상으로 최근 설문조사한 결과 신입사원 평균 스펙은 토익 662점, 학점 3.6점, 자격증 2개로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특히 평균 토익 점수는 지난해 상반기(730점)보다 큰 폭으로 떨어졌다. 구간별로는 600~700점 미만(34.4%), 700~800점 미만(23.3%), 600점 미만(18.9%), 800~900점 미만(18.9%) 순이었다.

실제로 토익 성적 평가 방식은 일정 수준만 넘기면 무관하다는 기업이 41.1%로 절반에 가까웠으며 토익 점수가 높을수록 우대한다는 기업은 16.7%에 불과했다. 기업 10곳 가운데 7곳(71.1%)은 어학 점수 없이도 합격한 신입사원이 있었다. /이국명기자

'알파 A5000' 찍어서 바로 무선 전송

4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모델들이 소니코리아의 미러리스 카메라 신제품 '알파 A5000'을 선보이고 있다. A5000은 와이파이(Wi-Fi)와 근접무선통신(NFC) 기능이 탑재돼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 기기와의 무선 연결을 통해 간단하고 빠른 전송과 원격 컨트롤이 가능하다. /연합뉴스

## 하루 10분 직장인 영어강좌 '휴넷 비즈톡' 출시기념 할인

하루 10분 투자로 직장 내에서 사용되는 비즈니스 영어를 마스터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 등장했다.

온라인 교육 전문기업 휴넷은 직장인을 위한 영어 강좌인 '휴넷 비즈톡(Biz Talk)'을 론칭했다고 4일 밝혔다.

휴넷이 자체 개발한 비즈톡은 전화, 회의, 출장, 프레젠테이션, 계약 협상 등 상황별 맞춤 과정으로 구성됐다. 또 토익, 토익 스피킹, 오픽 등 공인영어 시험의 언어 수준을 기반으로 개발돼 사용자는 자신의 영어 실력에 맞게 레벨(1~3)을 골라 수강할 수 있다.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 공부할 수 있도록 각 과목은 10분 내외로 짧게 구성돼 있는 것이 특징이다. PC는 물론 스마트폰, 태블릿PC에서도 이용할 수 있어 출퇴근 시간에 공부하기 적합하다. /이국명기자

# '원탁축제'로 꿍꿍이 없는 경영

이국명 기자의 알짜기업 탐방

⑨ 위메프

**두달에 한번 1000여 전직원 모여 7시간 동안 의사 소통·친목 도모**
**월 10만원으로 풀옵션 사택 입주**
**'고객우선' 가치로 일년 3배 성장**

지난해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소셜커머스 업체 위메프는 두 달에 한 번씩 신나는 '축제'를 벌인다. 1000여 명이 넘는 직원들이 한자리에 에버랜드 모형으로 둥글게 모여 회사에 대해 궁금한 모든 것을 7시간 여에 걸쳐 확인한다. 고대 그리스의 직접민주주의가 국내 벤처회사에서 재현된 듯한 모습이다. 이 자리가 끝나면 20여 명씩 팀을 이뤄 위메프가 선정한 맛집들을 방문한다. 단순히 매상만 올려주는 것이 아니라 서평을 도와주고 인증샷도 남겨 맛집 주인들이 위메프 축제일을 기다릴 정도다. 2010년 설립된 위메프가 '축제'를 한 번도 거르지 않는 이유는 이것만이 아니다.

박유진 홍보실장은 "의사 결정이 느려질 것이라는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1000여 명의 구성원에게 필요한 것을 한 번에 설명할 수 있어 오히려 스피드 경영에 도움된다"며 "특히 서로 교류하는 직원들은 전체 회의를 통해 동료들과 빠르게 친해질 수 있어 사내 소통도 더욱 원활해진다"고 설명했다.

위메프의 독특한 문화는 직원 복지에서도 빛난다. 서울에 위치한 벤처기업으로는 드물게 직원들을 위한 사택을 운영 중이다. 강남·

위메프 신사옥 1층에 위치한 더블유 카페 /손진영기자

송파에 위치한 사택의 입주 인원은 20명씩으로 옷장과 침대는 물론 냉장고, 세탁기, 가스레인지 등 생활에 필요한 거의 모든 시설을 구비하고 있다. 특히 비용은 일반 하숙집의 절반에도 훨씬 못 미치는 월 10만원에 불과하다.

포상제도도 다른 벤처기업 직원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반기별로 40여 명의 우수 사원을 뽑아 해외 연수를 보내주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40여명의 우수 사원이 지상낙원으로 불리는 보라카이에서 3박5일 동안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 밖에 직원 동호회가 사용하는 실내 야구장, 자체 카페인 '더블유(W) 카페', 생일 축하 선물 등도 직원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한몫하고 있다.

위메프가 이 같은 기업 문화를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간단하다. 대부분 벤처기업들이 꿈꾸는 상장이라는 목표가 아예 없다. 이는 고양 원더스 야구단 구단주이자 미국 독립야구단 현역 선수로 뛰고 있는 허민 원더홀딩스 의장이 100% 지분을 소유하며 든든한 투자자 역할을 하고 맥킨지컨설팅 컨설턴트 출신인 박은상 대표가 회사 운영을 전담하는 독특한 경영 체제 덕분이다.

따라서 매출 증가 관리 등 단기 목표 달성에 연연하지 않고 고객을 이롭게 하는 것이 곧 회사를 이롭게 하는 것이란 뜻의 '자리이타(自利利他)'라는 위메프의 가치에 집중할 수 있다. 그런데도 경영 성과는 갈수록 개선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거래액이 1500억원을 돌파하며 1년 만에 216%나 성장했다.

◆올해 200여 명 채용 예정

위메프는 이 같은 성과를 함께 나눌 지원자를 수시채용을 통해 뽑고 있다. 올해 계획된 채용 규모는 전 직무에 걸쳐 100~200명이다. 연령·학력·성별 제한 없이 홈페이지(www.wemakeprice.com/recruit)를 통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이국명기자 kmlee@metroseoul.co.kr

### 이런 인재를 원한다

## 뭐가 됐든 한 가지에 미쳐 봤다면 합격

"얼마 전 경력사원으로 입사한 한 직원이 '위메프에 온 후에는 출근하는 것이 기다려진다'고 말하더군요. 자신을 인정해주는 동료들 덕분에 즐겁게 일할 수 있다며 스스로의 변화를 놀라워했습니다."

하종엽(사진) 인사·총무팀 팀장은 위메프에서 스스로의 존재감을 찾아 능력을 발휘하고 성공의 경험도 함께 나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사옥 덕분인지 사내 분위기가 매우 밝다.

▶▶1000여명으로 늘어난 식구들을 위해 올해 초 신사옥으로 옮기면서 벤처기업다운 톡톡 튀는 분위기를 유지하려 노력했다. 기존 제일 신사옥에서도 사장 이사 등 고위 임원들이 전용실 없이 평사원들과 부대끼며 근무하고 있다. 덕분에 신입사원이 임원진에게 자유롭게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을 정도로 사내 소통이 원활하다.

▶근무 여건도 자유로울 것 같다.

▶▶오전 10시 출근 오후 7시 퇴근이지만 벤처기업인 만큼 근무 강도가 높은 것은 사실이다. 다만 일한 만큼에 대한 보상은 철저하다. 연봉은 아직 일반 벤처기업 수준이지만 실적에 따라 초과이익분배금(PS)과 성과급(PI)을 지급하고 있다.

▶합격 비법이 있다면.

▶▶얼마나 진심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자발적인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핀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 그동안 살면서 한 가지 일이나 물건 등에 집착해본 경험에 대해 물어본다. 등산이건 게임이건 하나를 얻기 위한 절실함을 경험해본 구직자라면 위메프의 독특한 기업 문화를 충분히 이해하고 열정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국명기자

장윤희 기자의 두잡 체험기

스피치트레이닝 ⑤

## 상사는 긴 말 싫어해! 보고할 땐 촌철살인

직장인의 일상은 보고에서 보고로 끝난다. 대면 보고, 서면 보고, 메신저 보고 등 사회생활에서 보고 잘하는 능력은 경쟁력으로 이어진다.

W스피치의 도움을 받아 수강생들과 모의 보고 연습을 해봤다.

우선 보고의 형식을 유의해야 한다. 바람직한 보고의 자세는 '촌철살인'이다.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줄줄 읊으면 안 된다. 보고는 최대한 간결하게 하는 것이 좋다. 대면 보고라면 1분 이내에, 문서 보고라면 A4 1~2매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 장황하고 긴 설명은 상대방의 집중력을 떨어뜨리고 보고자가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고 있지 못하다는 인상을 준다. 주제는 맨 처음에서 밝히되 그다음 내용은 '첫째, 둘째, 셋째' 식으로 순서를 매겨 보고할 수 있다.

아울러 상대방이 궁금해할 점을 예측해 보고 후반부에 밝히는 센스를 발휘해야 한다. 모의 보고 연습의 주제는 '한 패스트푸드점이 잠시간 앉아있는 노인 고객을 무례하게 쫓아내 불매운동을 촉발했다'였다. 이때 단순히 상황 전달에 그치지 않고 '우리 회사의 대응 전략', '우리 회사의 향후 고객 마케팅 방법', '경쟁사 동향' 등을 제시하면 일품 보고가 될 것이다. 미래까지 내다보는 선구안을 제시하면 업무 평가도 올라갈 것이다.

한편 성공적인 보고의 조건은 타이밍이다. 아무리 훌륭한 정보라도 타이밍이 맞지 않다면 도루묵이다. 너무 일찍 부정확하게 보고하는 경우도 잘못이지만 대부분 늦게 보고를 해서 문제를 일으킨다. 늦게 보고해서 문제가 되는 이유는 완벽하게 준비하려고 시간을 끌기 때문이다. 치열한 사회생활에서 발 빠른 보고는 개인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니 타이밍을 꼭 유념해야 한다. /unique

# 2년차 성장통…'공감의 위로' 노래

## 더 실버 라이닝 으로 돌아온 슈스케4 출신 홍·대·광

싱어송라이터 홍대광(29)이 두 번째 미니앨범 '더 실버 라이닝'에 진실성을 담았다. 타이틀곡 '답이 없었어'를 포함해 총 3곡이 수록된 이 앨범에서는 감성은 물론 한층 성숙해진 보이스를 느낄 수 있다. 어제 데뷔 2년째지만 그의 변화는 무서울 정도로 빠르다.

◆ 희망을 말하다

지난해 4월 첫 번째 미니앨범 '멀어진다'로 음원차트를 석권한 홍대광은 약 9개월 만에 '더 실버 라이닝'을 발매했다. 태양의 햇살을 받은 구름의 가장자리에 생기는 실버 라이닝은 '밝은 희망'으로 해석된다. 그는 "이번 앨범을 한마디로 함축하면 '공감의 위로'다"며 "인트로를 제외한 3곡 모두 지난 시간들을 회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타이틀곡 '답이 없었어'는 어리고 서툴렀던 그 시절의 나를 향한 위안이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일까. 홍대광은 가장 애착이 가는 곡으로 '스물다섯'을 꼽았다. 자신의 자작곡이기도 하다.

"인생 이야기와 철학 등 복잡한 이야기를 많이 담았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젊은 친구들이 공감할 수 있고, 지난 20대를 떠올리는 이들에겐 따뜻한 위로를 줄 수 있는 노래예요. '가벼운 계절 끝에서 커버린 사람들 속에 나는 조금 어지러운걸'이라는 노랫말이 좋지 않나요."(웃음)

◆ 새로운 변화

앨범 작업을 하면서 홍대광은 '성장통'을 겪었다. 첫 번째는 발성 연습을 통해 내적으로 한층 성장했다.

"슈스케 와 1집의 음악을 들으면서 전반적으로 음이 높아 장시간 들은 경우 귀가 지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이톤은 낮추고 호흡을 넣어 저음을 보강하는 발성 연습을 했죠. 여기에 넓은 음이 도드라지는 마이크를 써서 밸런스를 맞추기도 했어요. 이번 앨범을 통해 많은 부분이 바뀌었죠."

두 번째는 그동안 트레이드 마크였던 안경을 벗고 다이어트를 통해 여문 외적인 변화다. 쉬는 동안 킥복싱과 크루저보드 등을 통해 12kg 감량에 성공하며 몸무게를 60kg 중반대로 줄였다.

그는 "보아킴과 정준영을 보면서 다이어트를 시작했는데 신의 한 수였다"며 "킥복싱을 통해 폐활량도 늘리고 체력도 키우게 되면서 음악성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고 설명했다.

저음 보강 발성 연습에 12kg 몸무게 감량 성공
내 TM 안경도 벗었죠
공연으로 팬들과 소통

◆ 조심 헐지 않겠다

홍대광은 가수 데뷔 전 버스킹(거리 공연)을 하던 시절을 잊지 않는 가수가 될 것을 다짐했다. 그는 요즘에도 가끔씩 거리 공연을 보기 위해 홍대 버스킹 명소를 찾곤 한다.

"자신의 노래와 실력만으로 지나가는 행인의 발길을 잡는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콘서트보다 사람들을 집중시키기 어렵죠. 때문에 버스킹은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죠. 지금 와서 버스킹을 하기 힘든 건 과거에는 나를 몰랐던 사람들이 노래만으로 나를 판단하지만 지금은 홍대광이라는 알려진 사람이 노래한다는 차이가 있죠. 보여주기식으로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는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올해도 지난해 진행한 '김광석 다시 부르기' 전국투어에 이어 단독 콘서트까지 준비하고 있다. 그는 "노래를 할 수 있는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며 "초심을 잃지 않고 공연을 통해 팬들과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장병호기자 ssw@metroseoul.co.kr

디자인/최은지

# 최강 '하·하 커플' 납시오

## 하지원·하정우 영화 '허삼관매혈기'서 부부 호흡

'안방극장 퀸' 하지원(사진 왼쪽)과 '스크린 킹' 하정우(오른쪽)가 부부로 만난다.

배급사 NEW는 4일 "하정우가 주연·연출을 맡은 영화 '허삼관매혈기'의 여주인공으로 하지원을 확정했다"면서 "하지원은 피를 팔아 가족의 생계를 꾸리는 허삼관(하정우)의 아내이자 마을 최고의 미인인 허옥란 역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하정우의 두 번째 연출작인 이 영화는 중국이 낳은 세계적인 작가 위화의 대표 소설 '허삼관매혈기'를 한국에서 최초로 영화화한 작품이다. 원작 소설을 한국적 정서로 재해석해 한국의 근현대사를 배경으로 허삼관과 그 가족의 이야기를 풀어낸다.

1000만 관객 이상을 동원한 영화 '해운대'를 비롯해 SBS '시크릿 가든', MBC '더킹 투하츠'에 이어 현재 방영 중인 MBC '기황후'까지 출연하는 드라마마다 히트작 반열에 올려놓은 하지원과 '베를린' '범죄와의 전쟁: 나쁜놈들 전성시대' '국가대표' 등을 통해 한국 영화계를 대표하는 남자 배우로 자리매김한 하정우의 만남이라는 점에서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1978년생 동갑내기인 두 사람이 펼칠 부부 연기에 기대가 쏠린다. 하정우는 그동안 공식 석상에서 하지원과 멜로영화를 찍고 싶다며 러브콜을 보내왔다.

조연진의 면면도 화려하다. tvN '응답하라 1994'에 출연했던 성동일·김성균이 각각 허삼관의 때밀이 동지 방씨와 방씨의 단짝인 근룡 역을 맡았다.

이 밖에 허삼관의 친구이자 시련을 주는 심씨 역의 정만식과 계화 엄마 역의 김영애를 비롯해 김기천, 김병옥 등이 합류했다.

이 영화는 시나리오 작업과 캐스팅을 마무리한 후 올 상반기 크랭크인할 예정이다.

/박준헌기자 tak0427@metroseoul.co.kr

## 한채아 '메이드 인 차이나' 주인공 뽑혀

배우 한채아(사진)가 김기덕 감독이 제작하는 영화 '메이드 인 차이나'의 여주인공으로 낙점됐다.

김동후 감독의 연출 데뷔작인 이 영화는 장어라는 독특한 소재를 이용해 인간사에 대한 성찰과 메시지를 전달할 작품으로, 한채아는 차갑고 냉정한 식품의약안전청의 검사관 미를 연기한다.

김기덕필름의 김순모 프로듀서는 "한채아는 여주인공 미를 매력적으로 창조해낼 것으로 믿었다. 한채아의 연기적 포용력이 이 작품을 통해 더욱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채아는 드라마 '미래의 선택' '내 연애의 모든 것' '울랄라 부부' '각시탈' 등에서 보여줬던 발랄하고 생기 있는 여성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줄 예정이다.

/유순호기자

# 씩씩 vs 우아… 김희애 극과 극 변신

## '우아한 거짓말'선 털털한 주부 연기 … '밀회'선 강단있는 커리어우먼 역

tvN 예능 프로그램 '꽃보다 누나'로 화제를 모은 김희애가 극과 극의 모습으로 3월 스크린과 안방극장을 동시에 공략한다.

먼저 '101번째 프로포즈' 이후 20여 년 만의 스크린 복귀작인 영화 '우아한 거짓말'(3월 개봉 예정)에서 씩씩한 주부를 연기한다.

홀로 두 딸을 키우기 위해 마트에서 일하며 생계를 책임지고 있지만 언제나 주눅 들지 않을 정도로 당당한 엄마 현숙 역을 맡아 전에 없이 털털하고 자연스러운 모습을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평범한 엄마 역을 위해 노메이크업은 물론 머리를 질끈 묶은 수수한 모습으로 등장한다.

영화 '우아한 거짓말'의 김희애. /무비꼴라쥬 제공

반면 3월 중순 방영될 JTBC 새 월화극 '밀회'에서는 우아한 커리어우먼을 맡아 파격적인 멜로 연기를 펼친다.

성공을 위해 앞만 보고 달리던 예술재단 기획실장 오혜원 역으로 천재 피아니스트 이선재 역의 유아인과 약 스무 살의 나이 차를 극복하고 호흡을 맞춘다.

JTBC '밀회'의 첫 촬영을 진행한 김희애. /탈리토크 제공

최근 서울역 한 레지던스에서 진행된 첫 촬영에서는 단아하면서도 강단 있는 커리어우먼의 아름다움을 드러내 눈길을 끌기도 했다. 또 무의식중에 드러나는 혜원의 외로움을 순간적으로 표현해내 스태프들로부터 "역시 김희애"라는 찬사를 이끌어냈다는 후문이다. /박준헌기자

## '겨울왕국' 열풍 가요계까지

애니메이션 '겨울왕국' 열풍이 가요계까지 강타했다.

'겨울왕국'의 주제가 '렛 잇 고'는 에일리를 비롯해 디바지 이베리, 디아(사진), 이유비 등이 잇따라 불러 주목받고 있다. 디아는 지난 3일 자신의 소속사 위닝인사이트 엠의 공식 유튜브 채널과 키스엔크라이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에 '렛 잇 고'를 부른 영상을 공개했다.

또 지난달 25일 에일리는 자신의 트위터에 "'겨울왕국' 드디어 봤어요. 집에 오는 내내 '렛 잇 고'를 살하게 부르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이라는 글을 올렸다. 에일리는 최근 방송된 KBS2 '유희열의 스케치북'에 출연해 '렛 잇 고'를 열창하며 큰 박수를 받은 바 있다.

반면 지난 2일 SBS '인기가요'에서 새로운 MC가 된 이유비는 '렛 잇 고'를 열창해 화제가 됐지만 안 모양과 노래가 맞지 않아 곤욕을 치른 바 있다. /정성훈기자

## 단국대 영화콘텐츠 대학원에 롯데엔터테인먼트 12억 지원

롯데엔터테인먼트가 단국대와 함께 영화계 신진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롯데엔터테인먼트는 4일 협약식을 치르고 단국대 영화콘텐츠 전문대학원을 졸업하는 학생들의 영화 제작을 위한 제작비로 3년간 4억원씩 총 12억원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롯데엔터테인먼트는 2012년에 개원한 이 대학원에 영화 제작비 4억원을 처음 기부했고, 이는 1기 졸업생인 이응승 감독이 연출한 영화 '10분'의 제작비로 사용됐다.

'10분'은 제18회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뉴커런츠 부문에 초청돼 KNN관객상과 피프레시상(국제영화평론가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 이달 열리는 제64회 베를린국제영화제 영포럼 부문에도 초청받았다.

단국대 영화콘텐츠 전문대학원은 글로벌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해 재학생들에게 할리우드 거장들의 단기 집중 교육 프로그램을 연수할 기회를 제공한다. 또 미국 현지의 대학들과 공동으로 영화를 제작하는 등 세계적인 영화 콘텐츠 전문 학교로 성장하고 있다.

/유순호기자

1%가 묻고 99%가 상상한다!
199

tvN 커넥티브 강연쇼
창조클럽
199
매주 |수| 저녁 6시 50분 tvN | 2월 5일 2화 방송

## '별그대' 김수현 거침없는 인기

### 3월 아시아 투어 나서

SBS 수목극 '별에서 온 그대'(이하 '별그대')로 높은 인기를 얻고 있는 김수현(사진)이 3월부터 아시아 투어에 돌입한다.

소속사 키이스트는 4일 "김수현이 '별그대'를 마무리 짓고 3월부터 중국·일본·동남아 등을 도는 투어를 펼쳐 해외 팬들과 만난다"고 밝혔다.

이번 아시아 투어는 '별그대'와 김수현의 인기가 아시아 각지에서 날로 높아지면서 성사됐다. 최근에는 '별그대'가 중국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자 남주인공 도민준 역을 맡은 김수현이 현지 최대 검색 포털사이트인 바이두에서 '오늘의 남자배우' 부문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소속사 관계자는 "2012년 '해를 품은 달' 때부터 해외 팬들의 관심이 높아졌지만 '별그대'를 통해 더욱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면서 "중국뿐 아니라 아시아 전역에서 김수현에 대한 관심이 높다. 최근 국내 드라마를 해외에서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어 인기의 시차가 없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별그대'가 현재 20부작 중 13회까지 방영된 가운데 극 중 여러 복선이 등장해 결말에 대한 시청자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제작진은 "'별그대'의 모든 장면은 결말을 이끌어가는 데 꼭 필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앞으로 또 어떤 복선이 등장해 드라마를 보는 재미를 더해줄지 끝까지 지켜봐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연승기자 tulo4327@

## 엑소 日팬 7만명 만난다

### 4월 도쿄서 이벤트 개최

대세 그룹 엑소(사진)가 한국과 중국을 점령한 데 이어 일본으로 인기 열풍을 몰고 간다.

엑소는 4월 12~13일 도쿄 사이타마 슈퍼아레나에서 '엑소 그리팅 파티 인 재팬-헬로' 이벤트를 연다. 총 4회 공연으로 7만여 명의 팬들과 만날 예정이다. 이번 공연은 엑소의 첫 일본 이벤트로, 엑소가 일본에서 정식으로 데뷔하지 않았음에도 현지 팬들의 뜨거운 요청에 의해 성사됐다.

데뷔 전 첫 행사로 7만 명을 불러모으는 것은 역대 한국 가수의 해외 프로모션 중 최대 규모다.

일본 닛칸스포츠는 '미지의 스타 엑소, 4월 일본 상륙! 사이타마 아레나 7만 명' 이라는 제목으로 이번 이벤트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는 등 현지의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

엑소는 지난해 정규 1집 'XOXO(키스&허그)'로 12년 만에 앨범 판매량 100만 장을 돌파했으며 '2013 멜론 뮤직 어워드' '2013 MAMA' '2013 KBS 가요대축제' '제28회 골든디스크' '제23회 하이원 서울가요대상' 등 각종 시상식에서 대상을 휩쓸었다. 또 미국 빌보드가 선정하는 '2014년 주목할 아티스트'에 아시아 가수로는 유일하게 이름을 올리는 등 해외 음악 시장에서도 대세로 떠올랐다. 엑소는 오는 12일에 열리는 '제3회 가온차트 K-팝 어워드'에서도 대상을 노린다.

/유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 김선아 하정우와 '한지붕'

배우 김선아(사진)가 임창정·주진모·하정우·김성균 등이 소속된 판타지오와 전속계약을 맺었다.

지난해 말 전 소속사와 계약이 종료된 김선아는 자유계약시장(FA) 대어로 떠오르며 수많은 기획사들로부터 러브콜을 받아왔지만 오랜 시간 고심 끝에 최종적으로 판타지오행을 택했다.

판타지오 측은 "김선아와 1인자로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그 배경에는 기본적인 신뢰와 믿음이 바탕이 됐지만 무엇보다 당사가 추구하는 시스템, 제시한 비전과 배우가 지향하는 방향성의 공감대가 가장 컸다"고 입장을 전했다.

/박한원기자

# 때론 치명적인, 쓴맛 사랑

## '카르멘' 등 고전 15편 통해 사랑의 파괴적 속성 파헤쳐

"호세! 당신은 나한테 불가능한 걸 요구하고 있어. 나는 더 이상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그리고 그 때문에 나를 죽이려고 해."

고전 '카르멘'에 나온 카르멘이 호세에게 남긴 마지막 대사다.

대사에서 알 수 있듯이, 카르멘은 자신이 지닌 치명적인 매력을 발산해 유혹한 남자를 파멸로 이끄는 팜므파탈의 이야기인 동시에 순정을 바쳤지만 결국 배신당한 후 살인자로 전락하는 순진한 한 남자의 이야기다.

윤단우의 신작 '사랑을 읽다'는 이처럼 오랜 시간 대중에게 끊임없는 사랑을 받은 '위대한 개츠비' '폭풍의 언덕' 등 15편의 고전에 주목해 '사랑'이라는 얘기를 풀어낸다. 하지만 책이 말하는 사랑은 대

**사랑을 읽다** 윤단우/생각의 날개

나수의 사람들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떠올렸을 때 떠올리는 친밀함, 따뜻함, 배려, 교감과 같은 긍정적인 이미지가 아니다.

저자는 사랑의 긍정적인 속성에 정면으로 맞서며 고전 작품에 공통적으로 녹아있는 사랑의 파괴적인 속성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또 다른 작품인 '안나 카레니나' 역시 마찬가지다. 안나는 오빠 오블론스키가 아내 돌리를 두고 바람이 나자 그 둘을 화해시키기 위해 페테르부르크를 떠난다. 그리고 그 여정 중 브론스키를 만나 운명적인 사랑에 빠진다. 하지만 발단-전개-절정-위기-결말의 단계가 있는 소설처럼 그 둘의 사랑 역시 이와 같은 단계를 거치게 되고 안나는 결국 자살을 선택하며 이 이야기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는다. 진정한 사랑이 언제나 행복한 삶을 선물로 보장하지 않는다는 교훈을 남긴 채 말이다.

"사랑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이들에게 이 책이 변덕스럽고 제멋대로인 사랑의 속성을 이해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그래서 기대를 배반당하고 사랑에 실망하는 것이 아닌 좀 더 슬기롭고 현명하게 사랑할 수 있도록 용기를 줄 수 있다면 좋겠다"는 저자의 말처럼 사랑에도 또 다른 이해가 필요하지 않을까.

/서승희기자 saltdj4@metroseoul.co.kr

**책 속 한 컷** 걸 윷 모 전진하다 백도 인생도 윷놀이

도, 개, 걸, 윷, 모. 윷놀이의 말이 앞으로만 가는 것은 아니다. 백도 라는 역주행도 있다. 소가 뒷걸음치다 쥐를 잡듯이 역으로는 윷걸 될 경기도 하기 때문에 무모한 '나'보다 나을 때도 있다. 들로 거꾸로 가는 저 사나는 백도이기도 하고 윷판을 벗어난 낙이기도 하다.
- 나는 찍는다 스마트폰으로(한창민/오픈하우스) 중 -

/황재용기자 [illegible]

# '일회용 건전지' 아닌 '발전기' 되어라

**화제의 책**

**어떻게 일하며 성장할 것인가**
전병권/클라우드 나인

세상사가 다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직장 생활은 더욱 그렇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해봤을 '퇴사' 고민에 대해 롯데인재개발원 인재경영연구소장인 저자가 날카로운 해법을 제시한다.

당신은 누구인가, 어떻게 일할 것인가, 월급은 무엇인가, 왜 경쟁이 필요한가, 지금이 위기인가… 저자는 회사를 관두고 싶어하는 직장인들에게 11가지 질문을 대신 던진다. 그리고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직장인들은 한번 쓰고 버려지는 '건전지'가 아닌 '발전기' 같은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끊임없이 공부하고 '변화'하라는 말이다. 오늘날같이 경영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는 한번 배워서 평생 써먹는 삶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저자는 이 같은 상황을 나무꾼을 예로 들며 알기 쉽게 설명한다.

한 나무꾼이 오늘 안에 숲의 엄청난 나무를 다 베어야 하는데, 가진 것은 녹슨 도끼 한 자루뿐이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뭘까. 도끼를 날카롭게 갈아야 할까, 아니면 시간도 없는데 녹슨 도끼를 들고 나무를 찍어야 할까.

저자는 "도끼날부터 갈고 나무를 베어 하며, 일하는 중 도끼가 무뎌지면 다시 시간을 내서 날을 갈고 베어야 한다"고 말한다. 결국 자기의 삶을 바꾸고 싶다면 '새로운 플랫폼'을 설정해 실천하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매일 출근하기 싫고 하루하루가 지겹고 힘든 원인은 '내 안에 있다.' 일하며 성장하는 직장인의 병법이다.

/박지원기자 [illegible]

## 새로 나온 책

인문

**청춘의 고전**
김훈종/지식너머

세상의 길이 보이지 않거나 나의 삶이 보잘것없다고 느낄 때 가까이 훌륭한 멘토가 되어줄 이가 있다. 짧게는 수천 년 짧게는 수십 년의 시간 동안 인간의 보편적 가치와 삶의 지혜를 전해온 고전이다. 저자는 청춘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해볼 주제와 고전을 엮어 삶의 방향을 제시한다.

**빈 고흐와 고갱의 유토피아**
이택광/아트북스

네이버 '오늘의 미술'에 연재됐던 이택광 교수의 칼럼 '인상파 아틀리에'를 토대 삼아 업그레이드시켰다. 근대 늪섬의 논리에 타협하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끝까지 추구하려 했던 후기 인상파의 두 거장이 꿈꾼 이상향과 그들의 조우가 빚어낸 예술의 본모습을 찾아 떠나는 인문학적 그림 읽기다.

교육

**쫄지 마, 학교 밖으로!**
송경호/책씨미디어

저자의 딸은 4년간 정규교육 대신 살아있는 교육을 체험했다. '대안학교'에서 보낸 2년6개월과 거리 자체를 거대한 학교로 삼아 배운 로드스쿨러 3년6개월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딸뿐 아니라 온 가족은 대안교육의 주체가 돼 같이 고민하고 해쳐 나갔다. 책에는 그 현장의 경험과 대안교육의 발자취가 담겨 있다.

경제

**마흔살 재테크 상식사전**
우용표·한춘희/길벗

금융 분야부터 부동산·보험·연금을 비롯해 골치 아프지만 반드시 알아야 하는 세금 문제까지 각 분야별로 알아둬야 할 내용과 조심해야 할 내용을 총정리했다. 꼼꼼한 용어 정리와 함께 실손보험 제출용 병원 영수증 떼두는 법, '상가 임대수익률 구하는 법' 등 지금 당장 활용할 수 있는 친절한 해설도 가득하다.

심리

**프라이밍**
전우영/21세기북스

프라이밍은 기억에 저장된 생각을 무의식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뜻하는 심리학 용어다. 언젠선이 새로운 생각을 무의식에 심는 것이라면, 프라이밍은 이미 기억된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저자는 무엇이 주로 프라이밍되는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 미래의 나는 악마가 될 수도 있고 천사가 될 수도 있다고 말한다.

세계사

**혹하의 땅 소치로 떠나는 러시아 이야기**
허먹준/생각출판

2014년 소치 동계 올림픽이 열리는 러시아는 역사적인 상황으로 인해 지금까지 편견이 가득한 나라였다. 저자는 이런 편견 대신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을 재조명했으며 자신이 살면서 느낀 점을 토대로 소치와 러시아의 문화와 생활, 역사를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실용

**디저트카페 여행**
타다 치카코/미지북

일본 후쿠오카 태생인 저자가 현지인들은 물론 세운 반달 모양의 전통빵 '간즈키' 메이플과 고장 캐나다의 캐벡에서 맛본 '눈 위의 메이플' 디저트 전문 기자가 직접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미국 등 9개 나라 30개 도시를 여행하며 맛본 디저트의 맛에 얽힌 감동 스토리, 직접 만들 수 있는 레시피를 담았다.

자기관리

**남자의 펜**
가오카타 그시노리/책읽는수요일

괴테, 버나드 쇼, 명작, 쇼펜하우어 등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동서양의 유명한 문학가와 예술인과 철학자들의 명언을 담았다. 그들은 인생에서 마주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내놓는다. 하루하루 힘들고 괴롭지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고민하는 남자들이 귀 기울일 만하다.

소설

**월요일의 카페**
프란체스크 미랄레스/문학동네

사고로 부모님을 잃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주인공 아리스가 우연히 발견한 카페에 들어가게 된다. 아리스는 카페 안에서 각기 다른 기능을 가진 6개의 단지에 번갈아 앉으면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데…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며 삶의 의미를 되찾는 과정을 담은 감성 소설이다.

# 이상화 신기록 계속된다

sochi.ru 2014 D-2

## 500m 트랙 기록 경신·최다 격차 우승 도전

'빙속 여제' 이상화(25·서울시청)가 2014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새로운 기록에 도전한다.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깜짝 금메달'을 따냈던 이상화는 지난해 네 차례 세계신기록을 새로 쓰면서 소치 금메달 0순위로 꼽힌다. 그는 이번 대회에서 세계신기록이 아닌 또 다른 기록들을 노린다.

우선 트랙 신기록 수립이다. 현재 아들레르 아레나의 여자 500m 트랙 기록은 지난해 3월 종목별 세계선수권대회 2차 레이스에서 이상화가 작성한 37초65다.

당시 대회 2연패를 달성하며 화려하게 2012~2013시즌을 마무리한 이상화는 2013~2014시즌 월드컵에서 세 차례 연속 세계신기록을 세우는 등 한층 진보한 기량을 자랑했다. 이 기세를 잇는다면 아들레르 아레나의 트랙 기록을 갈아치우는 것도 가능할 선망이다.

역대 올림픽 최다 격차 우승도 도전해볼 만하다. 원래 한 차례 레이스만으로 승부를 가리던 여자 500m는 1998년 나가노 대회부터 1·2차 레이스를 치러 합산 기록으로 승부를 가려왔다.

이 가운데 가장 큰 격차가 난 것은 1998년 나가노 대회로, 카트리오나 르메이 돈(캐나다)이 1·2차 합계 76초60을 기록해 수잔 아우크(캐나다 76초93)를 0.33초 차이로 제쳤다. 이상화의 현재 페이스라면 이 기록을 넘어서고도 남는다.

지난해 같은 아들레르 아레나에서 열린 종목별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이상화는 1·2차 레이스 합계 75초34를 기록, 2위 왕베이싱(중국·76초03)과의 격차를 무려 0.69초로 벌리며 우승했다.

한편 절정의 기량을 자랑하고 있는 이상화를 왕년의 캐나다 스피드스케이팅 간판 스타 제러미 워더스푼(38)이 극찬했다. 4일 워더스푼은 "이상화를 지금 이기는 것은 매우, 그리고 극도로 어렵다"고 평가했다.

/장위준기자 yjw@metroseoul.co.kr

이 미소 마지막 순간까지 이상화가 3일 러시아 소치의 아들레르 아레나에서 훈련에 임서 밝은 표정으로 머리를 묶고 있다. /연합뉴스

## 안현수 미모의 여친 '화제'

러시아로 귀화한 쇼트트랙 스타 안현수(28·러시아명 빅토르 안·사진 오른쪽)가 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미모의 여자친구(왼쪽)로 또 한 번 화제를 모으고 있다.

안현수가 3일 소치 아이스버그 스케이팅 팰리스에서 열린 러시아 대표팀 훈련에 참가한 가운데 그와 밀착 동행하며 응원하는 한 여성이 취재진에게 포착됐다. 이 여성은 지난해 12월 러시아 언론에 '나리'라는 이름으로 소개된 적이 있으며 국내 취재진에게 노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여성은 안현수의 여자친구로 알려졌으며 스케줄 정리와 통역 등 선수생활 전반을 지원하고 있다.

또 안현수는 소치올림픽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된 러시아 대표팀 프로필의 가족란에 '파트너 나리'라고 기입해 연인 이상의 가까운 관계임을 밝혔다. /유순호기자 sune@

## K리그 내달 8일 '킥오프'

2014 프로축구 K리그 클래식이 다음달 8일 개막전을 시작으로 9개월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4일 이번 시즌 K리그 클래식의 대진과 시간, 장소를 포함한 경기 일정을 확정했다. 공식 개막전인 포항과 울산의 경기는 오후 2시 포항 스틸야드에서 열리며 같은 날 오후 4시에 전북-부산, 서울-전남의 경기가 펼쳐진다.

K리그 클래식은 12개 팀이 38경기씩 총 228경기를 치르게 되며 11월 30일까지 진행된다. 대회방식은 12개 팀이 3라운드의 정규 라운드를 치른 뒤 1~6위, 7~12위로 그룹 A, B를 나눠 스플릿 라운드에 들어가 팀당 5경기씩 더해 최종 순위를 정한다. A, B그룹으로 나눠 열리는 스플릿 라운드 일정은 정규 라운드 최종일인 10월 26일 이후 발표된다. /장순준기자

'수비 3중주' 잉글랜드 프로축구 첼시의 네마냐 마티치·브라니슬라브 이바노비치·다비드 루이스가 4일 영국 맨체스터의 이티하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프리미어리그 24라운드 맨체스터시티와의 경기에서 진지한 표정으로 벽을 쌓고 상대의 공격을 막고 있다. /AP 연합뉴스

# "류 15승…추 100득점"

## MLB닷컴 올 시즌 전망

올해 류현진(27·LA 다저스)은 최다 15승, 추신수(32·텍사스)는 2년 연속 100득점 이상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 MLB닷컴은 3일 리그 전체 선수들의 2014시즌 성적을 예상하며 류현진에게는 최고 15승, 추신수에게는 지난해와 비슷한 성적을 기대했다. 류현진은 미국 진출 첫해였던 지난해 14승8패, 방어율 3.00을 기록했다.

MLB닷컴은 류현진에 대해 "지난 시즌 성적을 기준으로 볼 때 올해는 다저스 선발 로테이션의 중간을 지키며 10~15승을 거둘 것"이라고 예상했다.

텍사스로 이적해 타선에 불을 붙일 추신수에 대해서도 밝은 전망을 내놨다. 추신수는 지난해 신시내티에서 톱타자로 활약하며 21홈런 20도루를 달성하고 출루율 0.423을 기록했다.

MLB닷컴은 "올해 좌익수를 맡을 예정인 추신수는 지난해 타격을 유지할 잠재력이 있고 득점과 도루에서도 계속 좋은 성적을 낼 것"이라며 올해는 타율 0.286에 19홈런 13도루, 104득점, 66타점, 출루율 0.366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성길기자

# 류현진이 바꾼 ML 풍토

이천호의 베이스볼 카페

일본인 투수 다나카 마사히로가 뉴욕 양키스와 1억5500만 달러의 금액에 입단하자 거품론이 일었다. 아무리 일본에서 24승 무패를 했더라도 실력에 비해 돈이 많다는 것이다. 다나카보다 낫다는 텍사스 에이스 다르빗슈 유는 연봉 1000만 달러에 불과하다.

류현진이 2012년 12월 LA 다저스에 입단할 때도 마찬가지로 거품론이 있었다. 6년 3600만 달러(유)에 되지 않았는데도 말이다. 스프링캠프가 되자 미국 기자들은 류현진을 몰고 놀이했다. 달리기에 꼴찌로 들어오자 흡연을 문제 삼았다. "감히 이렇게 많은 돈을 받다니"라는 비아냥이 들어있었다.

류현진은 이런 미국 기자들의 콧대를 꺾어놓았다. 14승, 방어율 3.00의 성적으로 3선발 투수로 자리 잡았다. 내셔널리그 챔피언십시리즈에서는 눈부신 호투로 다저스에 1승을 안겼다. 이제는 오히려 류현진=저연봉 고효율 투수로 언급되고 있다.

박찬호는 다나카의 대박에 류현진 효과가 작용했다고 해석했다. 다나카의 개인능력과 현지 수요가 많았던 점이 상승 요인이지만 같은 동양인 투수 류현진이 성공하면서 다나카의 몸값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메이저리그(ML) 분위기를 잘 아는 박찬호의 해석이 틀린 것은 아닌듯하다.

류현진 효과는 한국 프로야구 선수들에게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자유계약선수(FA) 투수 윤석민 세일즈에 나선 에이전트 보라스의 논리에는 류현진 성공담이 들어있을 것이다. 윤석민은 조만간 ML 계약을 통해 두 번째 한국 프로야구 출신 직수출 투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

ML은 강정호와 최정 등 한국 타자들에게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ML 구단들은 한국 프로야구 선수를 데려와도 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류현진의 덕이 크다.

/OSEN 야구전문기자

## 프로농구 전적 4일

| | | | | | |
|---|---|---|---|---|---|
| 삼성 | 15 | 11 | 20 | 12 | 58 |
| 전자랜드 | 23 | 24 | 19 | 25 | 91 |

## 프로배구 전적 4일

| | | | |
|---|---|---|---|
| 현대건설 | 3 | 0 | 인삼공사 |
| 삼성화재 | 3 | 1 | 한국전력 |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자동차는

# 필터클리닝을 무료로 받으세요!

제1종 배출가스저감장치(DPF) 장착 차량은 10개월(혹은 10만km)마다 정기적으로 필터클리닝을 실시해야 합니다

* 주기적으로 필터클리닝을 하지 않으면 출력 및 연비저하 등을 유발하고 저감장치 성능저하의 원인이 됩니다

장치의 보증기간(3년 혹은 16만km) 경과유무에 상관없이 필터클리닝 비용(연 1회)을 무상으로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제1종 배출가스저감장치(DPF) 장착 자동차

| 신청방법 | 장치제작사 및 지정된 클리닝센터에 전화예약후 방문

| 제작사별 클리닝 안내 전화번호 |

엠앤엠산업(구 SK에너지 존슨매티카탈리스트코리아) 02-2121-7681
- HK-MnS(구 현대모비스)1577-7278
- 일진전기 1588-7558
- 이엔드디 1644-2402
- 크린어스 1544-1198
- 후지노테크 031-654-2031
- 세라컴 02-744-1777
- 에코닉스 1666-3243

* 관련문의

| 기관명 | 전화번호 |
|---|---|
| 수도권대기환경청 자동차관리과 | 031-481-1378 |
| 서울특별시 친환경교통과 | 02-2133-3651 |
| 인천광역시 대기보전과 | 032-440-3552 |
| 경기도 기후대기과 | 031-8008-4230 |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02-3473-1221 |